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및 종교구성 연구

최원희* · 이근화**

A Study on Transformation and Formation of Religions of Sindoan Religious Village in Kyeryong Mountain

Wonhoe Choi* · Geunwha Lee**

요약 : 신도안 종교촌은 종교취락, 다종교취락, 풍수지리·풍수도참적 장소성, 1984년 폐쇄로 인한 촌락 소멸, 본래 입지에 대한 접근 불가, 선행연구 결과들 간의 큰 편차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크고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는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기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및 종교구성을 복원 차원에서 파악했다.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은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존속, 단속, 폐쇄 및 종교의 이전 등의 측면에서 파악되었다.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요인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특성과 풍수도참적 특성이다. 신도안 종교촌은 1903~1904년경 또는 1912년에 신도안에 시천교가 최초로 유입되고, 이를 계기로 군소영세 신흥종교들이 대거 유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도안 종교촌은 일제강점기 내내 수적 규모를 갖추지 못했으나, 해방 후 1950년대 한국전쟁을 계기로 번성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1백여 개가 넘는 종교가 입지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들은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차례의 정화운동에 의해 유사종교, 미신 등으로 왜곡되면서 일부가 추방되는 일이 있었다. 신도안 종교촌은 1983년에 고시된 6·20사업에 의해 1984년에 폐쇄되었으며, 이때 무속도 함께 철거되었다. 종교들은 주로 인근 대도시 대전과 인근 중소도시로 이전했으며, 무속은 대부분 계룡산에 최대로 근접한 곳으로 이전했다.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계통구성의 특성 중 가장 현저한 것은 다양한 종교계통의 종교들이 혼재했다는 것이다. 신도안 종교촌에서 개별 종교구성의 주요한 특성은 개별 종교의 고유성 유지 및 개별 종교간 공존, 신흥종교와 정통종교의 혼재, 개별 종교별 소속 종교계통의 불명확성, 시기별 개별 종교 구성수의 상이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 계룡산(鷄籠山), 신도안(新都內), 신도안 종교촌, 변천, 종교구성

Abstract : Based on existing materials on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in Kyeryong mountain, this study identified the transformation of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and the formation of religions in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in the level of restora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was identified in terms of occurrence, existence, crackdown and closure of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and relocation from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The most strik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igious lineage of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was the mixture of religions of various religious lineag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religious composition in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s are the maintenance of uniqueness of individual religions, the coexistence of individual religions, the mix of emerging and orthodox religions, the uncertainty of the religious lineage belonging to individual religions, and the divergence of individual religious members from time to time.

Key Words : Kyeryong mountain (Kyeryongsan, 鷄籠山), Sindoan (新都內), Sindoan religious village, Transformation, Formation of religions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w@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수료(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h7073@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 및 자료

20세기 초반에 발생되어 존속하다가 1980년대 중반에 폐쇄된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鷄龍山 新都內 宗教村, 이하에서는 '신도안 종교촌'이라 약칭함)은 한국의 취락 중 기능적 측면의 특수취락이라는 점, 특수취락 중 종교 취락이라는 점, 종교취락 중 단일종교의 종교취락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다종교(多宗教)의 종교취락이라는 점, 한국 사회의 역사 및 사회·문화와 직접 및 간접으로 연계되고 동시에 풍수지리(風水地理)·풍수도참(風水圖讖)에 기반한 계룡산의 장소성과도 연계되어 형성되었다는 점, 1984년에 폐쇄되어 취락의 인문지리적 원형이 거의 소멸되어 있고, 자연지리적 원형도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는 점, 해당 유적지가 현재 대부분 군사보안시설이어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발생, 종교구성(宗教構成) 등의 동일한 연구 내용에서 연구자 간에 차이점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연구는 신도안 종교촌의 원형을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원하는 연구가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의 내용을 '변천 및 종교구성'과 '내부구조 및 경관'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연구하기로 계획하고,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기존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및 종교구성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은 발생, 존속 및 폐쇄의 각 단계별로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다시 발생은 발생의 요인 및 과정으로, 존속은 종교 및 가구와 인구의 존속으로, 단속은 단속의 요인 및 과정으로, 그리고 폐쇄는 폐쇄와 그에 따른 종교의 이전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구성은 종교계통구성과 개별종교구성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다시 종교계통구성과 개별종교구성은 각각 구성의 내역과 특성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개별종교구성의 특성은 시기별 변천 측면에서도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동향

신도안 종교촌은 발생기원과 관련한 특이한 장소성·역사성·사회성, 다종교촌이라는 특성, 폐쇄되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신도안 종교촌 연구는 한국 종교촌 연구에서 특수한 위상을 갖고 있다. 신도안 종교촌 연구의 동향은 서적과 논문을 통해서 개관할 수 있다.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서적 형태 연구는 '신도안 종교촌만 직접 다룬 경우', '계룡산 전반을 다루면서 내용의 일부로서 신도안 종교촌을 다룬 경우' 및 '특정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내용의 일부로서 신도안 종교촌을 다룬 경우'가 있다. '신도안 종교촌만 직접 다룬 경우'로는 이경호(1964), 김덕중(1984),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993)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이경호(1964)의 연구는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 저작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연구는 지리학의 관점에서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 구성과 분포를 현지조사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다.

'계룡산 전반을 다루면서 내용의 일부로서 신도안 종교촌을 다룬 경우'로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992), 한홍수(1993), 충청남도(1994), 이길구(1996; 1997; 2001a; 2001b; 2009), 정중수·서현강(2003), 국립공주박물관(2007), 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201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충청남도(1994)의 연구만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에 관해 개관적 기술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에 관해 부분적 기술을 하고 있다.

'특정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내용의 일부로서 신도안 종교촌을 다룬 경우'로는 村山智順(1931), 善生永助(1933), 村山智順(1935), 논산군지편찬위원회(1994), 충청남도(1997),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999), 구중회(2001), 류제현(2002), 계룡시(2005), 논산시지편찬위원회(2005), 계룡면지편찬위원회(2006), 두마면지편찬위원회(2008),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10a; 2010b), 공주시·공주학연구원(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논산시지편찬위원회(2005)와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10b)의 연구만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에 관해 개관적 기술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에 관해 부분적 기술을 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간행 연구들은 신도안 종교촌의 초기상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의 내용에 왜곡이나 관점의 오류가 있다.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논문 형태 연구는 “신도안 종교촌만 직접 다룬 논문”, “계룡산 또는 신도안 전반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신도안 종교촌을 다룬 논문” 등이 있다. “신도안 종교촌만 직접 다룬 논문”으로 장철수(1976a; 1976b)와 주경식(1984)의 연구가 있는데, 이 중 주경식(1984)의 연구는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을 개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계룡산 또는 신도안 전반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신도안 종교촌을 다룬 논문”으로는 李覺鍾(1924), 최창조(1984), 이영숙(2000), Ryu(2005), 최원희 등(2018)의 연구 등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신도안 종교촌 연구의 주요 내용요소 중

일부만 다루고 있다.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서적 형태 연구이든 논문 형태 연구이든 전반적으로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에 관해 개관적 또는 부분적 기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및 종교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변천과 관련하여 발생시기에 관해, 그리고 종교구성과 관련하여 종교구성의 내역에 관해 연구자 간에 차이가 매우 커서 이에 관한 정리가 시급하다.

3. 연구지역의 개관

신도안 종교촌이 입지해 있었던 신도안 분지 내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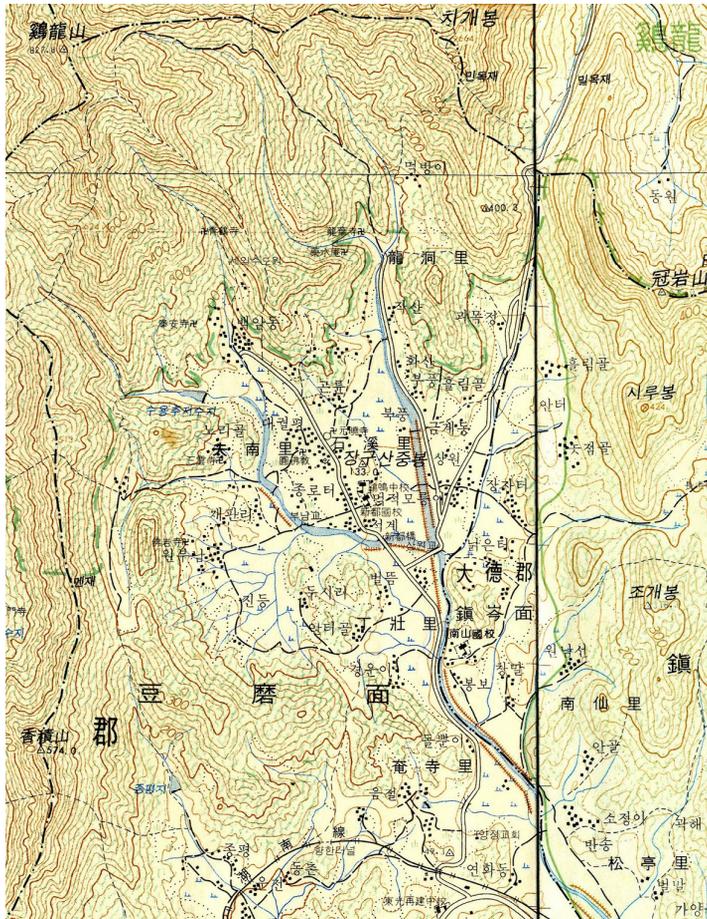


그림 1. 신도안 일대(1977년)

출처 : 국립지리원, 1979; 1981.

* 위 지도는 모두 1977년 편집본이며, 1:50,000 지형도.

도안 일대는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남도 계룡시(鷄龍市) 신도안면(新都案面)에 속해 있는데, 신도안면은 계룡시 북부에 있으며, 면적은 27.37km²이다. 신도안면은 북동쪽으로는 공주시 계룡면(鷄龍面)과 대전광역시, 서쪽으로는 논산시, 남쪽으로는 같은 시의 두마면(豆磨面)과 접한다. 신도안면은 행정적으로는 부남리(夫南里)·석계리(石溪里)·용동리(龍洞里)·정장리(丁壯里)·남선리(南仙里) 5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0:507).

신도안 종교촌은 신도안 분지와 그 주변의 산지사면에 입지해 있었다. 신도안 분지는 천황봉(天凰峰, 846.5m), 국사봉(449.0m), 향적산(香積山, 574.0m) 등의 여러 산봉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분지 내에는 석계천(石溪川), 용동천(龍洞川) 및 두계천(豆溪川)이 흐르면서 그 유역에 범람원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신도안 분지 내에는 중봉(中峰, 장구산, 179.5m), 신텔이봉(40m) 등의 소구릉지들이 있었다. 분지 내의 범람원 충적지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졌었고, 그 주변의 산지사면에서는 밭농사와 과수농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다(국립지리원, 1979; 1981; 1996a; 1996b; 1996c).

II.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본 장에서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은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존속 및 폐쇄의 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1)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요인

계룡산은 신라시대 이래 풍수지리적 길지로 간주되었고, 특히 계룡산 내의 신도안은 조선 초기에 천도 후보지로 꼽힐 만큼 풍수지리적 길지의 핵심으로 주목받았다. 신도안은 조선 후기엔 「정감록」에 기반한 풍수도참설이 유포되면서 미래의 도읍지로 예견되었다. 이러한 믿음이 자리하면서 1900년대 초부터 민간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집단이 모여들어 신도안의 부남리·석계리·용동리 일대에 특수취락 형태의 종교촌이 자리잡게 되었다(국토지리정보원, 2010:507; 두피디아). 따라서,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적시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특성과 풍수도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요인으로서 두 특성 요인들 중,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특성은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 변형적 재구성이 이루어졌는데, 거시적 차원의 경우는 계룡산과 원근의 산지와 하천과 같은 풍수적 요소들이 풍수개념도에 맞게 재구성된 것이고, 미시적 차원의 경우는 신도안 일대의 산봉, 구혈, 하천 등의 풍수적 요소들이 풍수개념도에 맞게 재구성된 것이다. 계룡산의 풍수도참적 특성은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특성이 「정감록」에 기반한 비기도참과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최원희 등, 2018:343-350).

(1)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특성 요인

①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은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으로서의 계룡산 풍수지리 유형을 ‘풍수개념도’에 부합되게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적 유형은 산태극수태극과 회룡고조, 쌍룡농주·일룡농주·유룡농주·비룡승천·비룡봉의, 금계포탄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계룡산 풍수지리 원형적 유형에는 풍수개념도 기준으로 일부 결여되어 있거나 일부 풍수적 요소들의 절대 입지가 풍수개념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계룡산의 풍수적 요소들을 풍수개념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에 원용된 풍수개념도는 태조산, 중조산, 근조산, 주산, 좌청룡, 우백호, 안산, 조산, 혈, 명당, 득, 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최원희 등, 2018:345-346).

한편,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은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거시적 차원의 경우는 계룡산과 사방 원근의 산지들, 금강, 신도안 등의 풍수적 요소들을 풍수개념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고, 미시적 차원의 경우는 신도안 일대의 천황봉, 삼불봉 연천봉, 관음봉 등의 산봉, 암용추와 솟용추와 같은 구혈, 석계천, 용동천, 두계천 등의 하천을 풍수지리적 구성요소로 하여 풍수개념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최원희 등, 2018:346-347). 또한, 계룡산 풍수지리의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의 변형적 재구성에 거시적 차원의 변형적 재구성은 미시적 차원의 변형적 재구성을 위한 것으로, 거시적 차원의 변형적 재구성은 미시적 차원의 변형적 재구성으로 종결된다.



① 신도안의 주산, 청룡, 백호 및 안산



② 신도안의 내명당 및 중명당

그림 2. 신도안의 풍수지리 구성

출처 : ①지중학, 2014:196; ② 지중학, 2014:199.

* ① 2009년 지중학이 촬영; ② 원자료 출처는 다음 카페 “신도안 친구들”(2011년 5월 3일 검색).

② 계룡산 풍수지리의 미시적 차원 변형적 재구성의 실제

신도안 중심지는 용호(龍虎)가 교쇄(交鎖)를 해주어 적당한 크기의 국세(局勢)를 이루고 있으며, 외부에서 보면, 신도안 중심지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이는 백호(白虎)가 길게 감싸주었기 때문이다. 신도안의 물길이 동남방으로 빠지는 것은 맞지만, 중심지에서 물 빠짐이 보이지 않으며, 풍수에서 금기시 하는 직거수(直去水)가 아님을 볼 수 있다. 궁궐터가 주산(主山, 계룡산 천황봉, 846.5m)을 뒤로 하고, 청룡(장구산)¹⁾과 백호(190여 m 능선)를 각각 좌와 우에 두고, 안산(170~190m 능선)을 앞에 놓고 내명당에 자리하고 있다. 내명당은 혈의 앞 청룡·백호 안의 평지에 해당된다(지중학, 2014:196).

신도안의 청룡에 해당되는 장구산이 깊숙하게 신도안의 궁궐터를 감싸주고 있다. 장구산의 능선은 내청룡 겸 안산이 된다. 솥추에서 시작된 물의 파구(破口)는 거의 병방(丙方)이 되고, 물은 크게 S자 형태로 흐르면서 장풍(藏風)과 득수(得水)의 원칙에 충실한 모습이 된다. 따라서, 신도안 전체는 장군봉을 경계로 석계리의 내명당과 정장리의 중명당, 그리고 엄사리의 외명당으로 구분된다. 신도건설시 궁궐은 내명당에, 종묘·사직은 장구산 밖 중명당에, 민가·시장은 외명당에 입지시킬 계획이었다(지중학, 2014:196). 요컨대, 계룡산 풍수지리의 미시적 차원에서의 변형적 재구성은 결국은 ‘신도안 풍수지리의 구성’으로 귀결된다.

신도안의 풍수지리 구성 중 주산, 청룡 및 백호에 관한 내용은 「조선의 풍수(朝鮮의風水)」(이하 「조선의 풍수」) (村山智順, 1931:852-853)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도안의 내명당(신도의 대궐터)은 상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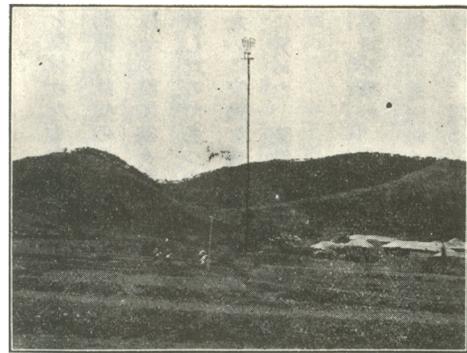


그림 3. 신도내의 금계포란의 난구

출처 : 村山智順, 1931:853.

* 금계포란(金鷄抱卵)의 난구(卵丘)는 금계산(金鷄山, 장구산·중봉)에 있는데, 금계산은 신도안 내명당(신도의 대궐터)의 좌청룡에 해당됨(村山智順, 1931:852-853; 지중학, 2014:196). 그림 제목의 신도내는 출처에 신도안을 신도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上帝峰, 천황봉)을 주산(主山)으로 하고, 금계산(金鷄山)을 좌청룡으로, 그리고 일용산(日龍山)을 우백호로 하고 있다. 금계산에는 ‘금계포란(金鷄抱卵)의 난구(卵丘)’가 있고, 일용산에는 ‘일용농주(日龍弄珠)의 주구(珠丘)’가 있다. 즉, 좌청룡에 금계가, 그리고 우백호에 일용이 모두 살아서 머물며 포옹하고 있으면서 좌청룡과 우백호 사이에 내명당이 있다. 이러한 신도안의 풍수 유형은 계와 용과 상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계림(鷄林)에 군왕(君王), 즉 용이 될 자가 상제할 것, 즉 ‘제위에 오를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2) 계룡산의 풍수도참적 특성 요인

계룡산의 풍수지리는 「정감록(鄭鑑錄)」(이하 「정감록」)에 기반한 비기도참과 결합하여 풍수도참화 되었는데, 이는 계룡산 자연경관의 풍수도참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최원희 등, 2018:348), 결국엔 계룡산의 풍수지리의 궁극지(窮極地)인 신도안을 대상으로 그의 풍수지리를 도참화하는 것이다. 계룡산 풍수지리의 도참화, 즉 계룡산의 풍수도참화는 신도안의 풍수지리적 길지성을 도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룡산 풍수도참의 출처인 「정감록」은 여러 가지 감결류(鑑訣類)와 비결서(秘訣書)의 집성이며, 주내용은 난세에 풍수설에 따라 복정(卜定)된 피난처에서만 지복(至福)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씨성(鄭氏姓)의 진인(真人)이 출현하여 이씨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예언으로, 미래에 다가올 멸망에 대비한 피난처의 이상경에 대한 동경이 전반을 꿰뚫고 흐르고 있다(仲摩照久, 1930a:141-143; 村山智順, 1931:850-857). 「정감록」의 2대 핵심은 ‘풍수설’로서의 계룡정도설(鷄龍定都說)과 ‘도참설’로서의 정씨왕운설(鄭氏王運說)이었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46). 이러한 「정감록」의 풍수도참적 비결류의 주제로 보면, 계룡산 풍수도참의 요체는 진인신앙, 신도신앙 및 승지신앙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원희 등, 2018:349).

신도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정감록」인데(주경식, 1984:73), 신도안에서 「정감록」에 기반한 풍수도참적 특성 요인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례로는 도선(道詵) 「비기」(秘記) 중의 계룡산 풍수도참, 연천봉의 비기도참적 참구, 정씨의 도읍지 신도안 전설, 계룡산인(鷄龍山人)이 작성한 조선 후기 신도안의 풍수지리도 등이 있다.

신라 말 풍수승 도선 「비기」 중의 ‘계룡산 풍수도참’에는 신도안에 관하여 “송도는 500년, 이씨가 기국(其國)을 탈(奪)하여 한양에 천도하다. 한양은 400년, 정씨가 국권 찬탈하여 계룡산에 축(築)하다. 신도는 산천이 풍부하고, 조야(朝野)가 광(廣)하고, 인민을 치(治)함에 모두 손순(遜順)하여 800년 도읍의 땅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村山智順, 1931:851).

‘연천봉의 비기도참적 참구’에는 「정감록」의 계룡정도설과 정씨왕운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천봉 바위에 새겨진 상하 두 줄의 자구(字句)는 ‘方百馬角 口或禾生(방백마각 구혹화생)’이다. 이 자구를 다시 정리하면, ‘四百八十二 國移(사백팔십이 국이)’란 구절이 된다. 즉, “조

선은 개국 482년째 되는 1874년에 망한다”(조선은 482년간 유지되고,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뜻이다(仲摩照久, 1930a:143; 村山智順, 1931:852-854; 村山智順, 1935:942-943; 이길구, 2001a:45; 이길구, 2009:24-25).

‘정씨의 도읍지 신도안 전설’에는 「정감록」의 계룡정도설과 정씨왕운설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국립공주박물관, 2007:165-166).

‘계룡산인이 작성한 조선 후기 신도안의 풍수지리도’(계룡시, 2005:85)에는 신도안에 대한 조선 후기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즉 신도안이 ‘풍수지리적 명당’이고, 「정감록」에 기반한 풍수도참의 예언적 실현지라는 2개 인식이 모두 잘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에 묘사된 신도안의 풍수지리적 특성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계룡산전도’(국립공주박물관, 2007)의 일부와 대체로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서 ‘계룡산인이 작성한 신도안의 풍수지리도’에 묘사된 ‘신도안의 풍수도참적 특성’ 중 주요한 것을 원본 표기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룡산上峰: 蓮花半開形 / 암용추 아래 帝子峰: 仙人讀書形 / 작산村 우측: 金鷄抱卵形 / 석계천, 용동천 및 두계천의 합류점: 三合水 / 서대곶터 위: 天國世界 / 서대곶터: 先天運四百年 後天運四百年大發運 / 동대곶터: 後天運四百年 / 중봉 아래 석계천과 용동천 사이: 合八百年餘千年大運 元然城局四方十里 / 금계촌 아래 용동천과 두계천 사이: 유대천추기만년 / 爲王山: 忠臣格 / 양정고개: 天馬山계룡운入山首 / 양정고개 좌측 산봉: 上帝奉朝格 大明堂有 / 노성산: 上帝奉朝格 大明堂有 / 부여강: 西行八十里餘扶餘江 / 부강: 東八十里美江蓮花山

(3) 계룡산 풍수도참의 실현 시도 사례

계룡산 풍수도참의 실현 시도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 초 태조의 신도경영, 조선 말 흥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계룡신도신앙(鷄龍新都信仰)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신도안 이주, 「정감록」의 전설미어(傳說迷語), 즉 미신(迷信)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한 신도내 미신취락의 출현, 유사종교에 의한 계룡산 성도건설운동(鷄龍山 聖都建設運動)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것들 중 신도경영과 계룡이도설은 모두 왕도 건설과 관련된 것들이고,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계룡신도신앙 신봉자의 신도안 이주, 신도내 미신취락의 출현 및 계룡산 성도건설운동은 모두 신도안 중

교촌 형성의 원인이 된 것들이다. 신도경영과 계룡이도설도 넓게는 신도안 종교촌 형성의 원인이 된 것들이다.

① ‘조선초 태조의 신도경영과 ‘홍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

계룡산 풍수도참의 실현을 위해 조선조에 계룡산 신도안으로의 천도 및 이도가 시도되었는데, ‘태조 이성계의 신도경영과 ‘홍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이 그것들이다(최원희 등, 2018:350). 신도안에서는 조선왕조 개국과 함께 태조 이성계에 의해 신도가 조성되다가 중단된 바 있으며, 이에 연유하여 신도안은 ‘신도’라고도 불리며, 그 흔적으로 신도안에 대궐터, 서문터, 주춧돌 등이 남아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0:507). 신도안은 조선 말기에는 「정감록」에 기반한 풍수도참설이 유포되면서 미래의 도읍지로 예견되었고(국토지리정보원, 2010:507), 이를 근거로 홍선대원군은 도성(都城)의 신도안으로의 이도(移都), 즉 계룡이도(鷄龍移都)를 시도하기도 했었다(이능화, 1968:31).²⁾

② 1910년대 후반(1918) ‘계룡신도신앙 신봉자들의 신도내 이주’

村山智順(1931:850-857)은 「조선의 풍수」에서 “신도안은 장차 국도가 될 것이라고 해서 이거(移居)하는 땅이다(村山智順, 1931:850)”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논산군과 공주군의 중간에 장차 국도가 될 만한 대길지라고 해서 각지에서 사람이 이주해 오고, 또 각종의 신앙업자가 본거를 두고 있는데, 이곳이 계룡산 신도내이다.

(村山智順, 1931:850)

신도내가 장차 왕도가 된다는 신앙은 풍수적 도참과 풍수적 유형의 두방면에서 그 근원을 말하고 있다.

(村山智順, 1931:851)

즉, 계룡산 신도는 여러 풍수적 유형으로 보아 왕도로서 하늘이 낸 땅이며, 또, 이태조가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자 한 일이 있는 땅이며, 더욱 비기 정감록에서도 이곳이 국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믿게 되었다.

(村山智順, 1931:853)

특히, 1910년 조선이 개국 482년 만에 망하자 연천봉 상의 석각 참구, ‘방백마각 구혹화생’, 즉 ‘사팔이 국이’가 적중되었고, 1911년 호남선 개통으로 초포행선설이 실현되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여러 참문이 신앙적으로 실증되어 가는 것을 보면, 신왕조가 나타나서 계룡산에 국도(國都)를 정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계룡신도신앙과 이곳으로 이주하는 근거이다.

(村山智順, 1931:855-856)

③ 1910년대 후반 ‘신도내 미신취락’의 출현

善生永助(1933:253-257)는 「조선의 취락: 전편(朝鮮의聚落: 前篇)」에서 1919년 소요 이래, 황당무개한 정씨왕국 건설이 이루어진다는 「정감록」의 전설미어, 즉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신도내로 이주하면서 신도내 미신취락이 출현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지역에 호구의 정착이주에 의한 취락의 형성은 대개 경제상의 이유에 기인하는 것인데, 조선에는 미신이 성하여 하등의 경제적 근거없이 다수의 이주자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충청남도 논산군의 계룡산 신도내 미신취락 등이 있다.³⁾

(善生永助, 1933:253)

신도내에는 무지(無智)한 미신자류(迷信者流)들이 정씨왕성건설도참(鄭氏王城建設圖讖), 불로불사(不老不死)·우화등선(羽化登仙)의 낙천지 미상(樂天地 迷想)을 믿고 각도에서 사람들이 이주하였다. 특히, 1919년 소요 이래, 정성왕국 건설의 시기라는 판단 하에 「정감록」의 전설미어를 신봉하는 무녀, 복자, 유사종교단체의 야심가들의 선전에 의해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1924년에 898호, 4,565명이 거주했고, 1921년에 당우(堂宇)를 건립하여 포교하는 유사종교단체가 8개가 있었다.

(善生永助, 1933:254-256)

그러나, 당시 신도내 이거 때 가재를 매각해 가져왔던 재산을 무녀복술도들에게 착취당하고, 무위도식하고, 초혜(草鞋)를 만들거나 약간의 산야를 개척하여 맥울(麥粟)을 경작하거나 노명(露命) 상태에 놓여, 중간에 미몽에서 깨어 귀향하고자 해도 여비가 궁하여 오도기도 못했다.

(善生永助, 1933:255)

④ 1890년대 후반 이래의 ‘계룡산성도건설운동’

村山智順(1935:934-950)은 「조선의 유사종교(朝鮮の類似宗教)」(이하 「조선의 유사종교」)에서 1890년대 후반 이래 기성종교 이외에 새로이 출현한 조선의 신흥종교(新興宗教)를 「조선의 취락: 전편」(善生永助, 1933a:251-257)에서와 같이 미신 등으로 폄하하지 않고, 유사종교로 간주하고 「조선의 유사종교」 전반에 관한 조사결과를 기술하면서 조선의 종교촌에 관해 유사종교의 사회운동, 즉 성도운동(성도건설운동)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유사종교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1894년의 ‘동학당의 난’, 1904년 설립된 ‘일진회(一進會)의 활동’, 1919년의 ‘3·1운동’, 1920년대의 ‘성도운동 및 기타의 ‘혹세운동(惑世運動)을 전개했으며, 특히 성도운동과 기타의 혹세운동을 통해서 다수의 특정종교들이나 개별 특정종교가 특정지역에서 특정종교촌을 형성하고 있다. 성도운동은 유사종교의 종교사상인 지상천국관념 및 구세주관념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나타난 것의 하나로, 성도운동은 왕도운동(王都運動), 즉 왕도건설운동이 아니다. 즉, 성도운동은 표면상 왕도건설운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상천국을 건설하여 종교적 생활환경을 피하려는 것이다.

(村山智順, 1935:934-950)

유사종교에 의한 성도운동 중 첫 번째는 ‘계룡산성도건설운동’인데, 이는 계룡산 남쪽 기슭에 ‘신도내’라고 하는 수개 부락이 소위 ‘성도건설의 기지’를 이룬 것이다.⁴⁾

(村山智順, 1935:941-942)

⑤ 일제강점기 1920년대 전반의 정감록 신앙 신봉

사람들은 조선 후기를 지나 일제강점기 1920년대 전반에도 사람들은 계룡산의 풍수도참적 특성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자 ‘계룡산기(鷄龍山記) 제1회분의 기사, “저주할 휴전기념일에 평화의 왕을 차져서 정도령은 잇는가 업는가 가을에 싸인 고찰 동학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부연하면, 이 기사에는 “... 우리 평화의 님금 정도령을 차자 들어가는 길이다. 정도령이 과연 계룡산 속에 잇는지 업는지는 들어가 보아야 알일이 어니와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보면, 1920년대 초 당시 사람들이 계룡산과 관련한 정감록 신앙을 상당히 보편적으로 신

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과정

(1)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직전 상황

조선 중엽 이후에 신도안이 ‘풍수지리적 길지’임을 믿는 유림들이 이곳에 정착하였다(이화복, 1984:359). 조선 말기에 이르러 「정감록」이라는 도참설이 유포되면서 신도안이 미래의 도읍지로 예견되었고, 이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서 1900년대 초부터 다양한 종교집단이 신도안에 자리잡게 되었다(국토지리정보원, 2010:507). 즉, 조선 말기의 혼란기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주민들이 몰리면서 신흥종교들이 태동하였다(오석민, 2013:179). 이에 따라, 정씨의 신왕도를 지상천국으로 삼는 유사종교의 교도는 속속 증가하고, 신도의 규모 개척에 참가하여 장래의 행복을 바라는 자는 각지에서 가산을 팔아 고향을 버리고 이 땅으로 이주했다(村山智順, 1935:943).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선 증가말기 신도안의 상황과 상반되는 주장도 있는데, “1924년 상제교의 정착 이전에는 실제 종교단체는 거의 없었고, 다만 산중에서 수련하는 도인들이 여럿 있었고, 명산의 정기를 받고자 하는 무당이나 기도객들의 발길이 잦았을 뿐이다”(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b:572)라는 기록과 “임진왜란 이후 민중의 이상향이 되어 갔음에도 한말까지 신도안은 반왕조(反王朝)의 상징적 지구로 지목받아 이곳에 살려는 주민은 많지 않았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와 득세하는 기미만 보이면, 「정감록」의 반왕조적인 이상을 꿈꾼다 하여 관가의 주목을 받아 왔던 것이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343)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2)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상황

신도안 종교촌이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초기 전후에 신도안에 시천교(侍天敎)가 유입하면서부터였다는 것이 일반적인데(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b:572), 시천교가 신도안에 유입한 시기와 관련하여 1903~1904년경, 1912년, 1921년, 1924년, 1926년 등 여러 상이한 견해들이 있으나, 대체로 1903~1904년경이라는 견해 또는 1912년이라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시천교의 신도안 유입시기가 1903~1904년경이라는 견해는 李覺鍾(1924:126)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이

에 의하면, 1903~1904년경에 시천교(금파(金派))의 황해도 출신 교도 30호가 신도내로 이주했고, 1912년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출신 홍순옥(洪淳玉) 등의 사람들이 이주했고, 1913년 전교소(傳敎所)를 설치했고, 1915년 이원화(李源化)가 전교사(傳敎師)로 함께 포교에 노력하며 거주했다. 이후, 1919년에 황해·평안·경북지방 교도들이 이주해오면서 1920년에 교주 구암 김연국(龜菴金演局, 1857-1944)이 온 가운데 전당(殿堂) 건립 낙성식이 거행됐고, 1922년에는 김연국의 별장이 건축됐다(李覺鍾, 1924:126-127).

이각중(李覺鍾)이 1924년에 위의 논고(“조선의 미신과 계룡산”)를 저술할 당시 그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촉탁으로 근무했고, 논고가 조선총독부가 발행하는 잡지인 ‘조선(朝鮮, THE CHOSŌN)’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이 논고의 내용이 비교적 신빙성이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시천교의 신도안 유입시기가 1912년이라는 견해는 두마면지편찬위원회(2008:384)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천도교 3대 교주 구암 김연국은 1912년 4월 5일 서울에서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주했다. 김연국은 신도안에 유입하여 정치와 결별할 것을 선언하고 시천교를 세우고 다시 상제교(上帝敎)로 개명했다가 또 다시 천진교(天真敎)로 개칭했다. 천진교가 신도안으로 이주한 것은 신도개척사(新都開拓史)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으로 당시 황해도·평안도 신도 등 2,500명이 이주했다. 시천교가 신도안에 유입하여 상제교를 거쳐 천진교로 변천할 당시 신도가 전국에 걸쳐 500,000명이 넘었다.

김연국이 신도안에 온 배경은 동학혁명 이후 막대한 타격을 입은 동학의 중흥을 위해서였으며(이길구, 2001a: 161), 평소 동학혁명을 주도하면서 “계룡산 아래 거처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도안을 동학의 근원지로 유념하라”라고 주장해 온 동학 제2대 교주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의 영향도 있었지만, 신도안이 「정감록」에서 말하는 새로운 왕국의 도읍이 되리라는 도참신앙도 한몫했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343-344;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4).

시천교가 1903-1904년경 또는 1912년에 신도안에 이주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조선총독부가 1918년에 발행⁵⁾한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논산·유성·공주·대전 도폭(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論山·儒

城·公州·大田 圖幅)」의 신도안 부분에 시천교의 시천교지부와 시천교회당이 각각 순서대로 상원리 일대와 부남리 대궐터 일대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맞는다면 이는 시천교가 1919년 이전에 신도안에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고래로 풍수가(風水家)가 신도내를 ‘왕자(王者)의 거(居)’로 여겨, 근년에 시천교를 시작으로 여러 종교유사단체들이 유입했고, 1919년경에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신도안 부근에 신부락을 발생시킨 바 있다”(仲摩照久, 1930b:105)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다면 이는 시천교가 1903~1904년 또는 1919년 이전에 신도안에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도안 종교촌에 최초로 유입한 시천교의 유입년도가 1903~1904년경 또는 1912년이 아니라 1921년, 1924년 또는 1926년 이라는 기록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921년 4월 5일 김연국이 세운 것으로 천도교 3대 교주 김구암이 서울 가회동(嘉會洞) 본부를 신도안으로 옮겨 올 때 함께 이주해 온 황해도, 평안도 신도가 약 2천명 이상이었다.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70)

1924년에 동학 계통의 시천교가 신흥종교로는 처음으로 집단으로 이주하였는데, 당시 3대 교주 김연국은 교인 1천여 명을 이끌고 신도안 내의 용동리에 터를 잡고 상제교로 개칭하면서 교당을 설치했다.

(이길구, 1996:111; 1997:113)

신도안이 신흥종교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24년 동학계인 시천교 3대 교주 김연국이 신도안으로 오면 서부터 출발했다. 그는 교인 1천여 명을 이끌고 신도안 내 용동리에 터를 잡고 상제교로 개칭, 교당을 설치했다.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75)

동학 3대 교주격인 구암 김연국이 1924년 서울 등 전국에서 신도 3천여 명을 이끌고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주했다.

(이길구, 2001a:160-161)

본격적으로 신도안이 종교집성촌으로 형성된 시기는 1924년 2월 13일 동학 시천교 제3대 교주 구암 김연국이

황해도와 평안도 신도 약 2천 명을 데리고 서울 가회동 본부를 비결의 땅 신도안으로 옮겨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부연하면, 김구암은 천도교로부터 물러나와 시천교를 세워 이용구, 송병준과 손을 잡았으나, 일제에 협력하자 1912년 견지동 시천교본부로부터 가회동으로 나와 다시 시천교도로 분리되면서 장차 신도안으로 본부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1918년부터 신도안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 2월 신도유신학교(新都維新學校, 후의 신도초등학교)를 세우고 본부 건물을 건립하여 이전 준비 끝에 1924년 2월 13일 본부를 신도안으로 옮겼다.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343-344)

1913년 이진탁의 단군전이 건립되고, 1917년에 정도교가 신도안에 터전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1924년 상제교의 정착 이전에는 실제 종교단체는 거의 없었다. 신도안이 신앙촌락으로 변한 것은 상제교의 정착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b:572)

1926년 현재의 천진교 3세 교주 김구암 선생이 신도안에 들어와서 수운제당(水雲祭堂)을 모시고 상제교라 칭하여 기도한 것이 오늘날 유사종교가 집결된 원인이라 보겠다.

(이경호, 1964:25-26)

이러한 기록들은 신도수의 차이를 제외하면 유사한 내용으로, 요컨대, “신도안 종교촌의 출현은 1921년, 1924년 또는 1926년에 시천교 3대 교주 김연국이 신도안에 신도를 이끌고 유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즉, 시천교 3대 교주 김연국이 신도안에 신도를 이끌고 유입한 것은 1921년, 1924년 또는 1926년이다”라는 것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1918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지형도의 신도안 부분에 시천교 시설 두 곳이 이미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근년에 시천교를 시작으로 여러 종교유사단체들이 유입했고, 1919년경에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신도안 부근에 신부락을 발생시킨 바 있다”(仲摩照久, 1930b:105)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천교 3대 교주 김연국이 1921년, 1924년 또는 1926년에 신도를 이끌고 신도안에 유입했다는 기록은 오류로 추정되고, 1903~1904년경 또는 1912년에 신도를 이끌고 신도안에 유입했다는 기록이 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연하면, “근년에 시천교를 시작으로 여러 종교유사

단체들이 유입했고, 1919년경에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신도안 부근에 신부락을 발생시킨 바 있다”(仲摩照久, 1930b:105)라는 내용은 오류일 수 있으나, 朝鮮總督府(1918)이 발행한 지형도의 신도안 부분에 시천교의 두 개 시설이 표기된 것은 오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면, 시천교 3대 교주 김연국이 신도안에 신도를 이끌고 유입한 것은 1921년, 1924년 또는 1926년이라는 것은 오류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신도안에 시천교가 유입하여 신도안 종교촌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는데, 시천교의 신도안 유입시기에 관해 상이한 견해가 나타나는 것은 연구자에 따라서 시천교의 신도안 유입 당시의 주도자의 교회 내 지위, 이주교도의 호수 및 인원수 규모의 기준 등에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신도안 종교촌의 본격적 발생의 단초가 된 시천교 신도안 유입시기를 특정년도로 단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시천교의 신도안 최초 유입은 1903~1904년경이나 1912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직후 상황

1918년에 이르러 각종 정씨왕성 건설, 불로불사, 우화 등선낙천지 등의 무지미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각도에서 계룡산 신도내로 이주해 왔다(善生永助, 1933a:254). 1919년 3·1운동 이래, 무녀, 복자, 종교유사단체의 야심가들이 정성(鄭姓)이 신도내에 유서깊은 왕국을 건설한다는 「정감록」의 전설미어에 나타나는 예언의 시기를 3·1운동 전후라고 선전한 결과, 이를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善生永助, 1933:255). 1919년경에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신도안 부근에 신부락을 발생시킨 바 있다(仲摩照久, 1930b:105). 일제강점기, “「정감록」에 의하면, 가정(假政) 6년 후에 인정(仁政)이 온다”는 참설이 유포되어, 가정 즉 왜정(倭政)이 물러가고, 곧 미일전쟁이 일어나며, 그 후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지며, 그때의 도읍지가 신도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신일철, 1978:279; 1983:195).

3) 신도안 종교촌 발생의 특성

(1) 신도안 종교촌 발생 요인 및 과정의 특성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적시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특성과 풍수도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요인으로서 두 특성 요인들 중,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특성은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 변형적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계룡산 풍수지리의 거시적 차원의 변형적 재구성은 계룡산과 금강을 핵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미시적 차원의 변형적 재구성은 천황봉과 신도안 본지의 구혈, 암봉과 하천을 핵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계룡산 풍수지리의 미시적 차원에서의 변형적 재구성은 결국은 '신도안 풍수지리의 구성'으로 귀결되었다. 계룡산의 풍수지리는 「정감록」에 기반한 비기도참과 결합하여 풍수도참화되었는데, 이는 계룡산 자연경관의 풍수도참화를 의미하는 것이며(최원희 등, 2018:348), 결국엔 계룡산의 풍수지리의 궁극지인 신도안의 '길지성의 도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계룡산 신도안의 풍수도참의 실현은 미신취락 출현, 계룡산성도건설운동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고, 그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신도안 종교촌이라고 볼 수 있다.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과정을 보면, 신도안에 사람이 본격 정착한 것은 조선 중엽에 풍수지리를 신봉하는 유림들이 유입되면서부터였고, 19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선 「정감록」에 기반한 계룡산풍수도참 신봉자들, 신선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등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은 주로 '유사종교 성격의 신흥종교' 또는 '무속'을 세웠거나 이들의 신도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초기 전후인 1903~1904년경 또는 1912년에 신도안에 시천교가 최초로 유입되고, 시천교의 신도안 유입이 이후 군소영세 신흥종교들의 신도안 대거 유입을 촉진하면서 신도안 종교촌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도안 종교촌에서 시천교 유입의 의의 및 영향

① 신도안 종교촌에서 시천교 유입의 의의

신도안 종교촌에 시천교가 유입한 것의 최대 의의는 신도안 종교촌 발생의 본격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조선 중엽 이후에 신도안이 '풍수지리적 길지'임을 믿는 유림들이 이곳에 정착하였고(이화복, 1984:359), 조선 말기에 이르러 「정감록」이라는 도참설이 유포되면서 신도안이 미래의 도읍지로 예견되었고, 이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서 1900년대 초부터 다양한 종교집단이 신도

안에 자리잡게 되었으나(국토지리정보원, 2010:507), 다른 한편으로 신도안은 「정감록」에 기반한 반왕조의 상징적 지구로 지목받아 이곳에 살려는 주민은 많지 않았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343). 이후, 일제강점기 초기 전후한 시기에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의 초기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로서 신흥민족종교들을 미신, 사교, 사이비종교, 유사종교 등으로 왜곡하고 매도하고 단속했는데(윤이흠, 2007:15-26), 이 와중에 구한말 개벽과 보국안민을 내세우면서 일제와 전쟁으로 맞섰던 동학에 기반한 시천교가 1903~1904년경 또는 1912년에 신도안에 유입함으로써 신도안 종교촌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부연하면, 1860년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가 창시한 동학을 일반적으로 신흥종교, 즉 신흥민족종교의 효시로 간주하는데(김홍철, 1992:421), 시천교가 바로 이 동학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시천교는 신흥민족종교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 "시천교가 신도안을 동학의 근원지로 유념하라는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의 유언을 실현하고 동학의 중흥을 위해 신도안에 유입함으로써"(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343-344;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4) 비로소 신도안 종교촌의 본격적 발생의 단초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동학이라는 신흥민족종교로서의 정통성을 가진 시천교가 신도안에 유입하면서 신도안 종교촌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② 신도안 종교촌에서 시천교 유입의 영향

본래, 시천교 이외의 군소영세 신흥종교들이 계룡산 신도안의 풍수지리 및 풍수도참 특성의 실현을 위해 신도안에 유입하는 것 이외에 시천교 유입에 영향을 크게 받아 신도안 유입을 서둘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천교 이외의 종교들이 시천교 유입에 영향을 크게 받아 신도안 유입한 것은, 신흥민족종교로서 종교적 정통성·권위성을 가진 시천교의 입지인 신도안에 동반 근접 입지하여, 자신들의 신도안 입지를 정당화하고, 군소영세 신흥종교로서 내적인 종교적 정통성·권위성의 결핍 내지 외부로부터의 유사성·사이비성 시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시천교의 신도안 유입은 이후 군소영세 신흥종교들의 신도안 대거 유입을 촉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신도안 종교촌의 존속

1) 종교의 존속

일제강점기 초기 1903~1904년(李覺鍾, 1924:126) 또는 1912년(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4) 시천교 유입을 계기로 1910년대에 신도안에 종교촌이 발생한 이래 이곳에 1918년에 시천교 시설 2개(조선총독부, 1918)가 입지해 있었고, 1929년에 13개 종파(이길구, 1996: 뒷표지 안부록; 국립공주박물관, 2007:15; 정중수, 2008:298), 1933년에 8개 종파(善生永助, 1933:255-256), 그리고 1935년에 4개 종파(村山智順, 1935:184-461)가 각각 입지해 있었다.

해방 이후, 1950년대 초반 6·25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천지개벽설이 고개를 들면서 신도안은 피난처로 각광을 받아, 신흥종교단체 교주가 다투어 신도안을 찾았고, 사회변동에 불안을 느낀 전국의 농민들이 신도안을 찾았다. 이들은 신도안을 「정감록」의 예언이 실현되는 곳이라고 믿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여겼다. 이들은 자기 나름의 진리에 입각한 지상천국을 꿈꾸면서 급진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전체적인 변혁을 갈구했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니 신도안의 새로운 세상이 정도령에 의해 실현된다는 기대 속에 어려운 생활을 감내해냈다(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75). 이에 따라, 1950년대 초반 신도안 종교촌의 신흥종교가 최성기를 맞이했다(이길구, 1996:111-112; 1997:113-114;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75-376).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는 1964년 58개의 종파(宗派)(이경호, 1964:29-32)를 거쳐 1970년 초 56개의 종파가 활동하였다(이길구, 1996:114-115; 1997:116-117). 1975년에는 신도안 종교촌에 출몰했던 신흥종교 교단수는 무려 124개⁹⁾에 달했고(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142;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58; 이길구, 1996:112; 1997:114;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75-376), 이중 형식상으로 규모를 갖추고 신흥종교라 할 수 있는 것을 든다면, 40여 개가 넘었다는 경우(이길구, 1996:112; 1997:114;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75-376)도 있고, 천진교(상제교 후신), 새일기도원, 세계일가공회 등 39개 정도였다는 경우(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142; 1993:58)도 있다.

1950년 초반부터 신흥종교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신도안은 1970년 들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1백여 개가 넘는 교단이 있었고, 신도수도 많게는 몇 만부터

적게는 몇 명까지 다양했다(이길구, 1997:123).⁷⁾ 1984년 신도안 종교촌의 철거 이전에도 100여 개의 종교가 입지해 적지 않은 규모를 이루었다(국립공주박물관, 2007:202).

2) 가구와 인구의 존속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의 존속 과정에서 가구와 인구의 존속도 병행되었는데, 1918년에 「정감록」의 계룡산 풍수도참 등의 미신을 믿는 백수십 호, 약 800명이 신도내로 이주했으며, 3·1운동 이후 「정감록」의 전설미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1924년 12월에 신도내 인구는 898호, 4,565명에 이르렀다(善生永助, 1933:254-255). 1926년의 조사에 의하면, 1918년 이전에 신도안에 이주해 온 토착민 515호 2,317명 이외에 1918~1923년 사이에 1,124호 4,939명이 이주해 왔는데, 이주상황을 연도별로 보면, 1918년 70호 350명, 1919년 91호 455명, 1920년 142호 710명, 1921년 610호 2,443명, 1922년 148호 744명 및 1923년 63호 237명으로, 1921년에 이주 호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村山智順, 1931:856-859).

상제교 김연국에 의해 계룡산 왕국의 운수가 도래하였다는 믿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가산을 정리한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들면서 1918년 당시 584호 인구 2,667명이던 것이 시천교 이주가 완료된 1924년에는 1,575호 6,949명으로 불과 6년 만에 가구와 인구가 3배 가량 급속히 증가하였다(충청남도계룡출장소, 1999:344). 불모의 한촌(寒村)에 지나지 않았던 신도내는 몇년이 지나지 않아 「정감록」의 계룡산 풍수도참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유입하여 호수가 약 3배로 증가하고, 1924년에는 1,500호, 인구 7,000명을 헤아려 학교나 시장도 개설된 멋진 신흥부락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村山智順, 1935:944). 1950년대 초반 신도안 종교촌의 신흥종교가 최전성기를 맞이했을 당시 신도안의 가구는 1,086호, 인구는 5,600여 명에 달했는데, 이같은 많은 인구는 신도안이 지난 1983년 6·20사업에 의해 철수될 때와 비슷한 인구였다(이길구, 1996:111-112; 1997:113-114;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76). 1983년 11월 현재 인구는 4,583명(가구 903호, 남자 2,311명, 여자 2,272명)인데, 이는 1924년 12월의 인구 4,565명과 근사한 규모이다(주경식, 1984:76).

1968~1983년간 신도안의 인구증가를 보면, 인구는 1968년의 5,116명에서 전체적으로 감소의 경향을 보인다. 감소의 속도가 빨라진 것은 1979년의 종교정리 후인

데, 1970년대 후반기는 전국적으로 이촌향도현상이 심했던 시기로 그 영향이 종교정리와 함께 복합적으로 인구감소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1983년의 인구는 4,583명으로 1968~1983년 사이에 533명이 감소되어 연평균 0.75%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당시 논산군 전체의 인구감소율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으로, 신도안은 변화가 느린 곳이라 말할 수 있다.

3) 신도안 종교촌 존속의 특성

신도안 종교촌은 일제강점기 초기 1903~1904년 또는 1912년 시천교 유입을 계기로 발생한 이래 일제강점기 내내 수적 규모를 갖추지 못했으나, 해방 이후 1950년대 초반 6·25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위기위식이 높아지고 후천개벽설 등이 퍼지면서 1950년대 초반부터 번성하기 시작하여 1970년 들어 1백여 개가 넘는 종교가 입지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의 존속 과정에서 가구와 인구의 존속도 병행되었는데, 조사자와 조사 시기에 따라서 수적 차이가 커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나, 대체로 1920년대에는 가구 100~1,500여 호(최소치~최고치) 및 인구 800~7,000여 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1950~1980년대에는 가구 1000여 호 및 인구 4,000~5,000여 명으로 나타나서, 일제강점기 이래 해방과 1950~1970년대 전성기를 거처서 1980년대 전반 폐쇄 직전까지 대체로 가구 1,000여 호에 인구 5,000~7,000여 명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신도안 종교촌에 대한 단속

1) 신도안 종교촌의 단속 요인

일제강점기 초기인 1900년대부터 신도안 종교촌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자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李覺鍾, 善生永助, 村山智順 등의 어용학자들을 동원해서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를 미신, 유사종교, 종교유사단체 등으로 폄하하고, 신도안 유입자들이 신봉하는 무속은 물론 「정감록」의 풍수도참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앙업자 등으로 매도했다.

부연하면, 李覺鍾(1924)은 “조선의 미신과 계룡산”에서 조선에 ‘종교유사단체 형태의 미신’이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종교유사단체 형태의 미신으로서 금파시천교신도내지부, 정토종신도내포교소(淨土宗新都內布教所), 제칠일 안식일야소재림교(第七日安息日耶蘇再臨教) 등 6

개가 미신의 영지(靈地), 계룡산의 신도내에 입지해 있다고 하면서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를 종교유사단체 형태의 미신으로 매도했다. 善生永助(1933a:251-257)는 「조선의 취락: 전편」에서 계룡산 신도내, 즉 충청남도 논산군 계룡산 신도내의 취락을 미신취락으로 폄하했다. 또한, 村山智順(1935:934-950)은 「조선의 유사종교」에서 조선의 신흥종교를 유사종교로 간주하고, 이 유사종교들이 계룡산 신도내 등 5곳에서 이른바 성도건설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는 왕도건설운동이 아니라, 유사종교의 종교사상인 지상천국관념 및 구세주관념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왜곡했다. 이에 따라, 신도안 종교촌은 크게 왜곡되고 위축되었다.

신도안 종교촌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1980년대 초까지의 기간에 외적으로는 혼란스런 사회상황에 의해, 그리고 내적으로는 기존의 풍수지리와 비기도참, 유불선, 무속, 토속신앙 등과 이질적인 신흥기독교종파, 왜색종파(倭色宗派) 등의 부정합적 교합에 의해 타락과 퇴락을 거듭하던 중 특히, 무속행위가 신도안의 암용추 및 솟용추를 중심으로 천황봉, 삼불봉, 관음봉, 연천봉 등의 계룡산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행정기관에 의해 미신으로 치부되어 추방 및 타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부연하면, 신도안 종교촌의 왜곡, 타락 및 퇴락을 유발하고, 추방 및 타파의 대상으로의 전락을 결정적으로 촉진한 것은 계룡산 전반에 확산되어 있던 무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신흥종교가 반체제 계몽독립운동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속을 미신으로 치부하면서 신흥종교도 함께 미신으로 몰아 전부 단속하는 사회정화운동이 전개되었고, 해방 후에는 자연 및 사회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무속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일부 신흥종교의 타락을 빌미로 대부분의 신흥종교를 유사종교·사이비종교를 넘어 미신으로 몰아 신흥종교와 무속을 전부 단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신도안 종교촌에 대한 단속 과정

신도안을 비롯한 계룡산 일대에서 무속이 무차별로 확산되고, 신도안 일대에서 다양한 유사종교 성격의 신흥종교가 번성하면서 신흥종교와 무속이 사회악이고 부조리이므로 추방·타파의 형태로 단속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제강점기 이래 1980년 초 신도안 종교촌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단속 움직임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의해서 사회 및 자연 정화운동 내지 사업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1) 일제강점기의 사회정화운동

일제강점기에 신도안 종교촌의 무속과 신흥종교의 추방·타파를 도모하는 사회정화운동이 언론기관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 있는데, 당시 동아일보사가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자부터 1924년 1월 11일자까지 36회에 걸쳐 연재한 ‘계룡산기(鷄龍山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연재기사의 제목은 ‘계룡산기’이나, 실제 그의 내용의 핵심은 ‘신도안’에 집중되어 있다. 제1회 가사의 제목도 ‘呪咀(주저)할 戰紀念日(전기념일)에 平和(평화)의 王(왕)을 차져서 정도령은 잇는가 업는가 가을에 싸인 고찰 동학사로 되어 있다. 연재기사의 내용 중 신도안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신도안은 ‘당시 세상에 은밀하게 떠돌던 새 세상에 대한 소문의 진원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들과 그들에게 속아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조동길, 2004:44-49).

(2) 해방 이후의 정화사업

해방 이후에 신도안 종교촌의 신흥종교와 무속의 추방·타파를 도모하는 정화사업은 1975년과 1979년에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는데, 1975년은 자연정화사업 형태로, 1979년은 정화사업 형태로 각각 진행되었으며(이길구, 1997:123), 1976년에 충남도경 주관으로 이루어진 정화사업도 있다(경향신문, 1976년 3월 12일자). 해방 이후 신도안 종교촌에서 시행되었던 정화사업을 1975년, 1976년 및 1979년을 사례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75년의 자연정화사업

신도안 종교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자연정화사업이 맨 처음시행된 것은 1975년이다. 1950년 초반부터 신흥종교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신도안은 1970년 들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1백여 개가 넘는 교단이 있었고, 신도수도 많게는 몇 만부터 적게는 몇 명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신흥종교가 많아지자 정부는 계룡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신도안 쪽 계룡산에 있는 신흥종교집단의 건물 철거작전에 돌입했다. 이 작전으로 무려 41개 단체가 없어지고 계룡산 곳곳에 있던 이들의 암자들이 철거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신흥종교 교주를 비롯한 책임자 53명을 적발, 이 중 16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교주와 신도들은 계룡산을 떠나면, 곧 죽는다고 여겨 완강히 거부했다. 설득과 타협은 존재하지 않았다(이길구, 1997:123-124).

1975년에 신도안 종교촌에서 시행되었던 자연정화사업 관련 행사를 보면, 간판에 ‘신도내자체정화축진결기대회’라는 주구호 아래에 “무속행위 추방으로 국민총화 이룩하자”와 “새마을정신으로 미신타파 앞장서자”라는 부구호가 써 있고(충청남도, 1999:245), 같은 시기로 추정되는 또 다른 자연정화사업 관련 행사를 보면, 관련행사의 간판에 ‘미신타파(未信破打)’라는 표기를 하고, “미신타파에 술선수범하는 종교인이 산신도(山神圖)를 태우고 있는 장면”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50).



① 신도안 자체정화 축진 결기대회(1975년)



② 신도안에서의 미신타파 행위(1970년대)

그림 4. 신도안 종교촌의 자연정화사업

출처 : ① 충청남도, 1999:245; ②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50.

1975년의 자연정화사업으로 41개의 종교가 없어졌고, 대부분이 신흥종교였는데(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151-152; 1993:64-65; 이길구, 1997:128-129),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도교대본영원(正道敎大本營院), 반용사(半龍寺), 황적암(黃跡庵), 청룡암(靑龍庵), 등용대(登龍臺), 쌍용암(雙龍庵), 통천암(通天庵), 삼선암(三仙庵), 광명암(光明庵), 천일사(天一寺), 내봉암(來鳳庵), 청사관음백(廳舍 관음백), 태극암(太極庵), 성도사(聖都寺), 법룡사(法龍寺), 신흥암(新興庵), 청룡암(靑龍庵), 실덕암(實德庵), 미륵불교정화법당(彌勒佛敎正化法堂), 청룡사(靑龍寺), 월정사(月精寺), 숫용암, 용추사, 계명사(鷄鳴寺), 삼성암(三星庵), 용추암, 자성암(自性庵), 석굴암(石掘庵), 대천사(大天寺), 떡보살(떡보살), 삼안석사(三安石寺), 산신암(山神庵), 봉원사(奉願寺), 백룡암(百龍庵), 선경사(仙京寺), 천태사(天台寺), 정주사, 용문암(龍門庵), 도덕암(道德庵), 안식문(安息門), 태극사(太極寺)

② 1976년의 정화사업

1976년에 충청남도경 주관으로 이루어진 정화사업도 있다. 당시의 정화사업은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의 성격을 ‘신흥종교’로 규정하고, 신도안 종교촌 자체를 ‘신흥종교의 집단지역’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동시에 계룡산 신도안에 대한 정화사업의 핵심을 “무속행위자를 귀가시켜 교주와의 접촉을 막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 “신도안, 특히 숫용추로 들어오는 외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경향신문, 1976년 3월 12일자). 부연하면, 이 자료는 신도안 종교촌에 유입된 신흥종교의 대부분을 무속으로 간주하면서 정화사업의 대상이 무속을 중심으로 한 신흥종교임을 밝히고 있고, 정화사업의 방법이 신도안 출입 통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1979년의 정화사업

1979년에 신도안이 신흥종교 집단촌이라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집단이주가 강행된 바 있는데(이길구, 1997:119), 이러한 1979년 계룡산에서의 종교 정리 시 470여 동의 건물이 철거되었다(주경식, 1984:78). 부연하면, 1975년 자연정화사업에 따른 철거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신흥종교들은 2년도 못돼 또 다시 계룡산에 들어와 철거 이전의 모습을 재생시켰다. 이에, 정부는 1979년 두 번째

로 계룡산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때에는 1975년 1차 때의 강제철거와는 달리 신흥종교 교주들의 물의나 반발이 일지 않도록 자진 철거를 종용했다. 자진 철거할 경우 용자지원과 신도안 마을 쪽에 부지도 확보해 주는 등 아량을 베풀었다. 보존 건물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할 경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암자나 사당은 구제받기도 했다(이길구, 1997:124).

1975년 자연정화사업은 충남도지사가 직접 확인까지 하는 등 그 당시 화제의 대상이었는데, 논산군수는 이곳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철거를 진두지휘했다. 2차래에 걸친 계룡산 내 정화사업은 계룡산 교주들의 침몰을 가져왔다. 당시 분위기는 교주들의 예언이 빗나가기 시작할 때였는데, 정부의 철거명령이 내려지자 신도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렸다(이길구, 1997:124-125). 특히, 신도안의 터줏대감격인 천진교(상제교)의 예언적 명시교리가 빗나가자 많은 신도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이곳을 등지면서 신도안의 황금시대도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신도안의 교주가 왕(王)이고, 간부는 재상(宰相) 아니면 판서(判書)로서 천지개벽으로 새세상이 오면, 교단이 즉시 행정체제로 바뀌어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으로 그 때 한자리 하려면 미리 입교하여 자리를 닦아놓아야 한다”고 포교하였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64). 그러나, “신도안의 교주가 왕이고, 간부는 재상 아니면 판서가 된다”는 천지개벽은 오지 않고, 가산을 탕진한 신도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정부는 1983년 신도안 내 주민 이주를 핵심으로 하는 6·20사업을 단행했다(이길구, 1997:124-125).

3) 신도안 종교촌에 대한 단속의 특성

일제강점기 이래 해방을 거쳐 1950~1970년대 전성기에 이르는 시기에 행정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은 계룡산 일대의 신흥종교, 특히 신도안 종교촌의 신흥종교와 무속이 계룡산 일대의 자연을 훼손하고 있음은 물론 종교촌 밖 사회 전반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신도안 종교촌의 무속을 미신으로 폄하함은 물론 신흥종교까지 유사종교·사이비종교의 차원을 넘어 미신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면서 ‘무속행위 추방’과 ‘미신 타파’라는 구호를 표방하고 사회·자연정화운동·정화사업을 수차례 전개했고, 그때마다 신도안 종교촌에서 신흥종교와 무속이 추방되는 일이 거듭되었다. 신도안 종교촌은 일대에서 기존에 거둬되던 사회·자연정화운동·

정화사업과 전혀 다른 차원의 6·20사업이 느닷없이 시행되면서 폐쇄되게 된다.

4. 신도안 종교촌의 폐쇄 및 종교의 이전

1) 신도안 종교촌의 폐쇄

신도안 종교촌은 1983년에 고시된 6·20사업이 시행되면서 1984년에 폐쇄되었다(국립공주박물관, 2007:202). 신도안에의 인구 전입은 1983년 6월 20일부터 금지되었고(주경식, 1984:74), 건물의 철거보상금은 1983년 12월 16일에 지급되었으며(주경식, 1984:82), 철거는 1984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다(주경식, 1984:72). 6·20사업의 공식명칭은 ‘6·20재개발사업’이었으며, 이 사업은 1983년 6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5개 리(엄사리·정장리·부남리·석계리·용동리)에 있는 건물 및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이 지역 내에 육군본부인 계룡대를 설치한다는 취지 아래 주민들의 개인재산을 매입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b:578-579).

신도안 종교촌 폐쇄 이후, 신도안에는 3군통합사령부의 입지를 지칭하는 속칭 계룡대(鷄龍臺)가 들어서게 되어, 1989년에 육군본부와 공군본부가 이전해 왔고, 1993년에 해군본부가 이전해 왔다(국토지리정보원, 2010:507; 계룡시 홈페이지). 신도안 종교촌이 폐쇄될 때 일대의 무속도 함께 철거되었다. 6·20사업에 의해 신도안 종교촌의 폐쇄가 결정되어 이주가 임박하자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논의했고, 일부 종교인들은 신도안 종교촌 해체를 비판하는 의식을 갖기도 했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50).

2) 종교의 이전

신도안 종교촌 폐쇄로 종교들은 인근 지역이나 멀리 타지로 이전했다. 주경식(1984:82)은 신도안 종교촌 폐쇄 직전인 1983년 11월 7일에 철거후의 이주지를 조사했는데, 이에 의하면, 제1위는 “보상금액에 따라서”(42.8%)이나, 이는 별개로 하고, 제2위(실제는 제1위)는 “대전으로 이주”(27.4%)로 신도안이 대전권에 속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3위는 “부근의 소도시(주로, 논산과 연산)로 이주(15.5%)”, 제4위는 “부근의 농촌으로”(9.0%), 제5위는 “서울·부산으로”(3.6%)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제1위도 같은 비율로 이주지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80% 이상이 도시지향적인데, 이는 최근의 유사종교가 주로 도시에서 활약한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992:153-158; 1993:65-68)의 자료에도 신도안 종교촌 폐쇄로 인한 51개 종교들의 타지 이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제1위는 인근 대도시인 대전으로 이전한 경우(20개, 39.2%)이고, 제2위는 인근 중소도시(농촌지역)인 논산·공주로 이전한 경우(16개, 31.4%)이고, 제3위는 원격지인 서울·부산·춘천, 영동·합천으로 이전한 경우(5개, 9.8%)이다. 그리고, 제4위는 충청남도 내의 아산·연기로 이전한 경우(3개, 5.9%)이다. 이전지 미상(7개, 13.7%)도 있다.

3) 신도안 종교촌의 폐쇄 및 종교 이전의 특성

신도안 종교촌은 1983년에 고시된 6·20사업이 시행되면서 1984년에 폐쇄되었으며, 이때 신도안 종교촌 일대의 무속도 함께 철거되었다. 신도안 종교촌의 폐쇄가 임박하자 종교들은 이주대책을 논의했고, 일부 종교는 신도안



① 6·20사업으로 철거되는 신도안의 종교시설(1984년)



② 계룡대 건설 초기의 신도안(1980년대 후반)

그림 5. 신도안 종교촌의 철거와 계룡대 건설

출처 : ① 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 2018:44; ② 정종수·서현강, 2003:30.

종교촌 폐쇄를 비판하는 의식을 갖기도 했다. 신도안 종교촌의 폐쇄로 종교들은 주로 인근 대도시 대전과 인근 중소도시로 이전했으며, 신도안 종교촌 일대에 공존하던 무속은 대부분 특성상 계룡면 양화리 등 계룡산에 최대한으로 근접한 곳으로 이전했고, 극히 일부만 인근 도시로 이전했다.

III.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구성

본 장에서는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구성에 관하여 종교계통(宗敎系統) 차원의 구성(이하 '종교계통구성'이라 칭함) 및 개별종교 차원의 구성(이하 '개별종교구성'이라 칭함)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참조한 종교계통구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교계통을 종교계(宗敎系), 종교계(宗敎界), 종교 등으로 칭하기도 하며, 개별종교를 종단(宗團), 교단(敎團), 종교집단, 종교단체, 종(種)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출처 인용의 경우 종교계통 및 종교의 원문의 표기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계통구성

1) 신도안 종교촌 종교계통구성의 내역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계통구성의 내역을 보면, 신도

안 종교촌에는 다양한 종교계통의 종교들이 혼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연구자가 제시한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계통구성의 내역과 종교계통에 속한 해당 개별종교의 수를 존재했던 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 신도안 종교촌 종교계통구성의 특성

신도안 종교촌에는 다양한 종교계통의 종교들이 혼재했지만, 정리하면 1차적으로 동학적 종교와 서학적 종교로 분류할 수 있고, 2차적으로 동학적 종교는 선교(도교), 유교, 불교, 단군, 무속, 물법 등의 종교계통으로, 서학적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계통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 잡교로 분류되는 종교계통도 있다.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계통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종교별 종교계통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경호(1964:29-32)의 연구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993:59-63)의 연구는 종교별 종교계통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어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무속을 1개 종교계통으로 별도로 설정한 경우도 있는데(이화복, 1984:355-361; 이길구, 1996:112-113; 국립공주박물관, 2007:202;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408-410), 이는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 구성에 '무속의 위상'을 크게 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신도안 종교촌 종교계통구성 내역(1935~1984년)

존재시기(출처)	종교계통구성 내역
1935년(村山智順, 1935:184-461)	東學系 類似宗敎團體 2개, 佛敎系 類似宗敎團體 1개, 崇神系 類似宗敎團體 1개 (3개 계, 4개 유사종교단체)
1964년(이경호, 1964:29-32)	불교계통 35개, 기독교계통 3개, 천주교계통 1개, 유사종교계통 18개, 선교계통 1개 (5개 계통, 58개 종교)
1975년(이길구, 1996:112-113;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76)	불교계 62개 종단, 무속계 20개 종단, 동학계 7개 종단, 단군계 2개 종단, 도교계 2개 종단 등 (5개 계, 104개 종단)
1975년(국립공주박물관, 2007:202)	불교계 62개 종단, 무속계 20개 종단, 동학계 7개 종단, 기독교계·유교계 4개 종단, 단군계 2개 종단, 도교계 2개 종단, 물법계 1개 종단 등 (7개 계, 104개 종단)
1975년(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143-149; 1993:59-63)	東學的 宗敎 116개(仙道의 新興宗敎集團 14개, 儒敎의 新興宗敎集團 12개, 佛敎의 新興宗敎集團 90개), 西學的 宗敎 8개 (4개 적, 124개 신흥종교집단)
1976년(이화복, 1984:355-361)	불교계 56종, 무속계 17종, 동학계 6종, 유교계 4종, 기독교계 2종 (유사종교 85종), 불교 3개, 동학 3개, 기독교 2개 (8개 계, 93개 종)
1983년(주경식, 1984:80)	기독교 4종, 불교 35종, 잡교(雜敎) 10종 (4개 종교, 49개 종)
1983년(주경식, 1984:83)	교회, 교회 관련 종교, 절, 유교·천도교계통, 동학, 선교계통 (6개 계통)
1912-1984년(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0-413)	正易界 2개, 東學界 4개, 類似佛敎界 7개, 圓佛敎界 1개, 檀君敎界 3개, 基督敎界 4개, 甌山道界 3개, 天地大安敎 1개, 巫俗界 3개, 個別宗團界 2개 (10개 계, 30개 종교)

2. 신도안 종교촌의 개별종교구성

1) 신도안 종교촌 개별종교구성의 내역

신도안 종교촌에서 일제강점기 초기 전후인 1903~1904년경 또는 1912년 이래 1984년 폐쇄 직전까지 존재했던 종교들의 내역을 여러 연구자들이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를 통해 보면, 매우 다양한 종교들, 즉 유사종교 성격의 신흥종교들과 기성의 정통종교들이 공존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도안 종교촌에 존재했던 개별종교의 구성내역을 보면, 표 2와 같다.

2) 신도안 종교촌 개별종교구성의 특성

신도안 종교촌에 존재했던 개별종교구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별종교의 고유성 유지 및 개별종교간 공존이다. 신도안 종교촌은 유사종교의 총본산으로, 보기 드문 '전통적 종교박물관'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신중성, 1984:326), 이는 신도안 종교촌이 여러 종교가 혼재(混在, affiliation)하여 촌락을 형성했음(신중성, 1985:127)을 의미한다. 1903~1904년경(李覺鍾, 1924:121-122) 또는 1912년(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4) 시천교의 유입에 의한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이후, 1984년 폐지되기 직전까

표 2. 신도안 종교촌 개별종교구성 내역(1903~1986년)

존재시기(출처)	개별종교구성 내역
1903-1904년경(李覺鍾, 1924:121-122)	金派侍天教 (1개)
1912년(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4)	侍天教 (1개)
1918년(朝鮮總督府, 1918)	侍天教支部, 侍天教會堂 (2개)
1924년(李覺鍾, 1924:122)	金派侍天教新都內支部(侍天教金派), 淨土宗新都內布教所(淨土宗豆腐磨面布教所), 大谷派同朋教會(眞宗大谷派同朋教會出張所), 第七日安息日耶穌再臨教(耶穌教第七日安息日再臨教南仙里禮拜所), 檀君教忠南支部(檀君教), 大華教新都內布教堂(大華教) (6개)
1929년(이길구, 1996: 뒷표지 안부록; 정종수·서현강, 2003:298; 국립공주박물관, 2007:15)	三神堂, 上帝敎上帝敎宿室上帝敎傳敎室, 七星敎, 檀君敎, 東學敎, 太華敎, 眞0敎, 淨土寺, 岩室, 寺, 寺 (13개)
1933년(善生永助, 1933:255-256)	淨土宗布敎所, 上帝敎總本部, 七星敎布敎所, 萬人敎, 眞宗大谷派論山同朋敎出張所, 檀君敎忠南支部, 光華敎婦人修養會, 正道敎 (8개)
1935년(村山智順, 1935:184-461)	上帝敎(동), 天仗敎(동), 光華敎(불), 七星敎(승) (4개) / 동: 동학계 유사종교단체, 불: 불교계 유사종교단체, 승: 승신계 유사종교단체
1950년대 초반(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349)	세계일가공회, 천진교 등 200여 개가 넘는 교단
1964년(이경호, 1964:29-32)	天眞敎(유), 來鳳庵(불), 龍華寺(불), 帝釋寺(불), 石掘庵(유), 三神堂(유), 山神堂(불), 藥水庵(불), 靈神庵(불), 光明庵(불), 天一寺(불), 靈神堂(유), 正道敎(유), 太極寺(유), 天眞殿(유), 法龍寺(불), 一心敎(유), 奉安所(불), 天宮殿(유), 華藏庵(불), 法正寺(불), 關聖廟(유), 白岩寺(불), 蓮水庵(불), 黃龍閣(유), 正道敎本部(불), 山神閣(유), 奉安寺(불), 淨土寺(불), 念佛堂(불), 佛岩寺(불), 靑鶴寺(불), 長老敎(기), 天主教(천), 天地大安敎(유), 監理敎(기), 道德庵(유), 龍興寺(불), 祈禱巖(불), 富德寺(불), 七星敎(유), 龍鳳寺(불), 雲峰寺(불), 彌勒寺(불), 圓佛敎(불), 山祭堂(불), 太乙敎(유·사), 三仙庵(불), 붕어명당(기), 光德庵(불), 鷄龍寺(불), 檀君敎(유), 道德會(유), 忠孝寺(불), 中幕(선), 揚延寺(불), 水雲敎(불), 金剛殿(불) (58개) / 불: 불교계통, 기: 기독교계통, 천: 천주교계통, 유: 유사종교계통, 선: 선교계통
1965년(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 2018:41)	鷄龍寺, ○○, 靑鶴寺, 白光寺, 山神閣, 雲龍寺, 大星殿, 太乙敎, 關聖廟, 奉安寺, ○德寺, ○○寺, 연수암, 白岩寺, 葉불당, 龍興寺, 佛岩寺, 天一寺, 葉불암, 道德寺, 山神堂, 三神堂, 華藏庵, 석굴암, 檀君敎, 來鳳庵, 붕어명당, 三一殿, 天眞殿, 奉安殿, 一心敎, 法龍寺, 太極寺, 天眞敎(上帝敎) (34개)
1969~1970년(주경식, 1984:81)	正道敎, 天地大安敎, 咏歌舞踏敎, 大宗教, 亞亞(불·아)神宮, 天道敎修道院, 水雲敎(별파), 彌勒巖山敎, 無量天道敎, 마음의廣場, 樂園精舍, 새일수도원, 계룡산기도원, 正道敎敎祖 秦永洙, 末世福音宣敎會, 붕어명당수양원, 七星敎, 皇皇敎, 道學敎, 一心敎 (20개)

표 2. 신도안 종교촌 개별종교구성 내역(1903~1986년)(계속)

존재시기(출처)	개별종교구성 내역
1970년초(이길구, 1996:114-115; 1997:116-117)	龍化寺, 葉○庵, 法龍寺, 白岩寺, 奉安寺, 正士亭, 鷄龍寺, 忠孝寺, 來鳳庵, 亭釋寺, 三神堂, 山神堂, 靈神庵, 光明庵, 天一寺, 靈神堂, 太極寺, 華藏庵, 法正寺, 蓮水庵, 黃龍閣, 山神閣, 念佛堂, 佛岩寺, 青鶴寺, 道德庵, 龍興寺, 祈禱幕, 富德寺, 龍鳳寺, 神仙庵, 雲鳳寺, 彌勒寺, 圓佛教, 山祭堂, 太乙教, 三仙庵, 光德庵, 道德會, 中幕, 天真教, 正道教, 天真殿, 一心教, 奉安所, 天宮殿, 關聖廟, 正道教, 七星教, 檀君教, 天地大安教, 붕어명당, 長老教, 天主教, 監理教, 石掘庵 (56개)
1970년 초(이길구, 1997:123)	1백여 개가 넘는 교단
1975년(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143-149; 1993:59-63)	無量天道, 三神堂, 天地大安教, 東學會中央本部, 水雲教別派, 上帝教, 天真教, 東學會中央本部, 水雲教, 天道教新都內教區, 彌勒庵山教, 作山檀君殿, 南山檀君殿, 鷄龍天真殿(이상, 선), 檀聖殿, 一心教, 更正儒教, 三一殿, 天真殿, 三天道, 殉國先烈奉安殿, 幕聖導道院, 檀君殿, 神靈道德教, 一心教別派, 詠歌舞踏教(이상, 유), 半龍寺, 黃跡庵, 石岩寺, 青龍庵, 自性庵, 天文庵, 登龍臺, 雙龍庵, 通天庵, 彌勒寺, 三仙庵, 海龍巖隱菴, 光明庵, 天一寺, 靈神庵, 見性庵, 鷄龍精心院, 龍水庵, 彌勒庵, 鷄龍寺, 石掘庵, 宰釋寺, 白雲庵, 來鳳庵, 大天寺, 祈禱幕, 떡보살, 法龍寺, 太古宗地藏庵, 青龍庵, 靑舍觀音樓, 太極寺, 華藏庵, 大德庵, 正士寺, 忠孝寺, 圓佛教新都支部, 圓佛教同修養院, 光德庵, 無量天道, 百岩寺, 聖都寺, 蒼生庵, 三安石寺, 樓鳳庵, 白蓮庵, 山神庵, 玉女峰山神閣, 彌勒寺, 法龍寺, 中元寺, 青鷄寺, 奉願寺, 寶德庵, 彌勒佛道龍華法堂, 通龍寺, 青龍寺, 月精寺, 蓮水庵, 百龍庵, 法正寺, 黃龍殿, 奉安寺, 觀音寺, 仙京寺, 머리암, 숯음庵, 天太寺, 정추사, 龍秋寺, 龍秋庵, 龍門庵, 玉明寺, 佛庵寺, 念佛庵, 道德庵, 三恩寺, 鷄鳴寺, 三星庵, 龍興寺, 龍華寺, 法正寺, 雲峰寺, 念佛庵, 淨庵寺, 玉蓮庵, 隱寂寺, 淨土寺, 大韓佛教法相宗, 龍華同乘會(이상, 불), 世界一家公會, 새일修道院, 天馬山祈禱院, 聖潔會第一教會, 하나님'의집公會, 붕어명당, 鷄龍山祈禱院, 正道教上帝峰派(이상, 서) (124개) ⁸⁾ / 산: 동학적 종교 중 선도적 신흥종교집단, 유: 동학적 종교 중 유교적 신흥종교집단, 불: 동학적 종교 중 불교적 신흥종교집단, 서: 서학적 종교
1975년(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142-143; 1993:59-350)	黃跡庵, 靑龍庵, 自性庵, 登龍臺, 雙龍庵, 通天庵, 三仙庵, 光明庵, 大天寺, 숯龍庵, 龍추사, 龍門庵, 도덕암, 天一寺, 新興庵, 黃龍殿, 仙京寺, 靈神庵, 石掘庵, 靑舍觀音樓, 聖道寺, 떡보살山神教, 天太寺, 玉女峰山神閣, 王明寺, 三星庵, 三架石寺, 白蓮庵, 미륵불도청화법당, 蓮水庵, 中元寺, 奉願寺, 白龍庵, 머리암, 山神庵, 정추사, 용추암, 새일수도원, 용흥사 (39개) ⁹⁾
1975년(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64-65; 이길구, 1997:128-129)	正道教大本營院, 半龍寺, 黃跡庵, 靑龍庵, 登龍臺, 雙龍庵, 通天庵, 三仙庵, 光明庵, 天一寺, 來鳳庵, 廳舍觀音樓, 太極庵, 聖都寺, 法龍寺, 新興庵, 靑龍庵, 寶德庵, 彌勒佛教청화법당, 靑龍寺, 月精寺, 숯음암, 용추사, 鷄鳴寺, 三星庵, 용추암, 自性庵, 石掘庵, 大天寺, 떡보살, 三安石寺, 山神庵, 奉願寺, 百龍庵, 仙京寺, 天台寺, 정추사, 龍門庵, 道德庵, 安息門, 太極寺 (41개) ¹⁰⁾
1975년(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b:576-577)	정도교총본부, 천진교, 천진전, 천지대안교, 천도교대본영원, 천도교신도교구, 세계일가공회, 새일수도원, 지장암(태고종), 만룡사, 황적암, 청룡암, 등룡암, 쌍룡암, 통천암, 삼신당, 미륵사, 삼선암, 해룡암, 광명암, 천일사, 령신암, 견성암, 계룡사, 제석사, 백운암, 래봉암, 법룡사, 청룡암, 청사관음백, 태극사, 화장암, 대덕암, 정토사, 충효사, 무량대도, 백암사, 성도사, 장생암, 백연암, 옥녀봉산신각, 미륵사, 법룡사, 중원사, 신흥암, 청학사, 운봉사, 미륵불도용화법당, 청룡사, 월정사, 연수암, 황룡전, 봉안사, 관음사, 숯음암, 용추사, 용추암, 불암사, 염불암, 삼사사, 계명사, 삼성암, 룡흥사, 자성암, 석굴암, 대천사, 갯정유도, 떡보살, 삼안석사, 산신암, 봉원사, 백룡암, 법정사, 선경사, 미리암, 천태사, 정추사, 룡문암, 왕명사, 도덕암, 단성전, 삼일전, 삼전도, 순국선열보관소, 동학회중앙본부 (85개)
1976년(국립지리원, 1977)	靑鶴寺, 龍華寺, 奉安寺, 藥水庵, 새일수도원, 정도교교회, 三雲寺, 圓佛教, 元曉寺, 天真教, 佛岩寺 (11개)

표 2. 신도안 종교촌 개별종교구성 내역(1903~1986년)(계속)

존재시기(출처)	개별종교구성 내역
1977년(국립지리원, 1979; 1981)	靑鶴寺, 龍華寺, 藥水庵, 佛岩寺, 圓佛敎, 元曉寺, 三雲寺, 奉安寺, 세일수도원 (9개)
1983년(주경식, 1984:77)	기도원(정신이상자 수용), 東學敎堂, 圓佛敎堂, 天眞敎堂 (4개) ¹¹⁾
1984년(이길구, 1997:130-138)	三思寺, 순국선열봉안소, 三一殿, 天眞殿, 우주일주평화국본부, 三天道, 無量天道敎, 正道敎總本部, 天地大安敎, 三神堂, 海龍庵, 見性庵, 黃龍殿, 天道敎新都內敎區, 天眞敎總本部, 새일수도원, 東學會中央本部(水雲敎別派), 正土寺, 泰安寺(생명수), 水雲敎別派, 玉女峯山神閣, 圓佛敎新都안三同院新都敎堂, 대한예수교장로회신도교회, 기독교감리회신도안교회, 檀聖殿, 一心敎, 華藏庵, 百岩寺, 法正寺, 佛岩寺, 念佛庵, 雲峰寺, 龍興寺, 靑龍庵, 白蓮庵, 中元寺, 蓮水庵, 蒼生庵, 龍華寺, 머리庵, 觀音寺, 龍門庵, 玉明寺, 地藏庵, 白雲庵, 黃龍寺, 彌勒寺, 帝釋寺, 大德庵, 忠孝寺, 法龍寺, 鷄龍寺, 淨土寺, 上帝敎正理本院, 東學大宗院, 水雲敎生道敎(仙敎), 作山壇君殿, 南山壇君殿, 鷄龍天眞殿 (59개) ¹²⁾
1984년(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153-158; 1993:65-68)	三思寺, 순국선열봉안소, 三一殿, 天眞殿, 世界一主平和公會(세계일주평화국), 三天敎, 無量天道敎, 正道敎總本部, 天地大安敎, 三神堂, 海龍庵, 見性庵, 黃龍殿, 天道敎新都內敎會, 天眞敎, 새일교회, 東學會中央總部(수은심법연수회), 正土寺, 泰安寺(생명수), 水雲敎別派, 玉女峯山神閣, 圓佛敎新都안三同院新都敎堂, 대한예수교장로회신도교회, 감리회신도안교회, 一心敎, 화장암, 白岩寺, 檀聖殿, 法正寺, 佛岩寺, 운봉사, 용흥사, 靑龍庵, 白蓮庵, 中元寺, 蓮水庵, 蒼生庵, 용화사, 머리庵, 觀音寺, 龍門庵, 玉明寺, 地藏庵, 白雲庵, 黃龍寺, 彌勒寺, 帝釋寺, 大德庵, 忠孝寺, 法龍寺, 계룡사 (51개) ¹³⁾
1984년(국립공주박물관, 2007:202)	종교단체 (100여 개) ¹⁴⁾
1984년(계룡시, 2005:674)	떡보살施祭터, 원효사, 상계교, 용화사, 봉어명당, 양도천목사교회, 불암사, 연천사, 연수암, 天地大安敎본부, 봉안사, 청학사, 영신암, 정도교, 팔모정, 삼신당, 세계法본부, 관성묘, 생명수 (19개) ¹⁵⁾
1984년(뿌리깊은나무, 1992:229)	청학사, 봉안사, 불암사, 용화사, 약수암, 원효사 (6개)
1984년(국립지리원, 1996a; 1996b; 1996c)	無量天道, 동화중단협의회, 백양사, 奉安寺, 세일修道院, 法正寺, 三雲寺, 佛岩寺, 道德庵, 天眞殿, 法龍寺, 三天道, 無量天道, 世界一家公會, 忠孝寺, 淨土寺, 圓佛敎, 天地大萬道, 新都長老敎會, 天眞敎祈禱院, 鷄龍淸心院, 新都安敎會, 東鶴天眞敎本部, 山祭堂, 母聖祈禱院 (25개) ¹⁶⁾
1985년(한국종교학회, 1985:631-732)	東學會中央本部, 마음의 광장, 無量天道, 새일교회, 世界一主平和國, 神靈道德會, 正道敎, 天馬山祈禱院, 天地大安敎(天地大安道), 天仗敎 (10개) ¹⁷⁾
1986년(국립지리원, 1986)	靑鶴寺, 龍華寺, 奉安寺, 藥水庵, 세일수도원, 정도교회, 三雲寺, 圓佛敎, 元曉寺, 天眞敎, 佛岩寺 (11개) ¹⁸⁾
1912~1984년(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0-413)	無極大道, 靈歌舞蹈敎(이상, 정), 侍天敎, 水雲敎別派, 水雲敎, 性道敎(이상, 동), 龍華寺, 帝釋寺, 淨土寺, 鷄龍寺, 佛岩寺, 法正寺, 忠孝寺(이상, 유), 圓佛敎(이상, 원), 作山壇君殿, 南仙里壇君殿, 鷄龍天眞殿(이상, 단), 世界一家公會, 새일修道院, 天馬山祈禱院, 봉어명당(이상, 기), 人天敎, 彌勒巖山敎, 太乙敎(이상, 중), 天地大安敎(이상, 천), 三神堂, 떡보살, 無量天道(이상, 무), 正道敎, 一心敎(이상, 개) (30개) ¹⁹⁾ / 정: 정역계, 동: 동학계, 유: 유사불교계, 원: 원불교계, 단: 단군교계, 기: 기독교계, 중: 증산도계, 천: 천지대안교, 무: 무속계, 개: 개별종단계

지 신도안 종교촌에는 다양한 개별종교들이 혼재하면서도 개별적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했다.

둘째, 신흥종교와 정통종교의 혼재이다. 신도안 종교촌의 개별종교들은 유사종교 성격의 신흥종교와 기성의 정통종교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신도안 종교촌의 시기별 개별종교구성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종교별로 신흥종교와 정통종교를 명확히 구분해 놓지 않아서, 현재로는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면, 개별종교의 명칭이 '00사(00寺)인 경우 정통종교로서의 불교일 수도 있고, 신흥종교의 한 종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연구(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143-149; 1993:59-63)는 조사한 124개의 개별종교 전체를 신흥종

교(신흥종교집단)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별종교별로 신흥종교와 정통종교를 명확히 구분해 놓은 이경호(1964:29-32)의 연구와 이화복(1984:355-361)의 연구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셋째, 개별종교별 소속 종교계통의 불명확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도안 종교촌의 개별종교들이 소속된 종교계통이 다양한 가운데 개별종교의 소속 종교계통이 명기된 경우가 드물어서 신도안 종교촌의 개별종교별 종교계통 구성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으나, 이경호(1964:29-32)의 연구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993:59-63)의 연구는 개별종교별 종교계통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어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넷째, 시기별 개별종교 구성수의 상이성이다. 신도안 종교촌의 개별종교구성의 수가 1900~1910년대 발생초기가 아니고 전성기로 간주되는 1950~1970년대에도 조사 연도별로, 그리고 조사 연구자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도별 자료가 미비하여 개별종교구성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조사 연도별 개별종교구성 수의 변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리이나, 현재의 입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발생시기부터 폐쇄시기에 이르는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시기인 1903~1904년경(李覺鍾, 1924:121-122) 또는 1912년(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4) 및 1918년(조선총독부, 1918)에 각각 1개로 가장 적었고,²⁰⁾ 1950년대 초반에 200여 개 이상(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349)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구성수를 시대별로 보면, 최소차-최고치가 일제강점기 전후 시기에 1~13개로, 해방 이후 1950년대 초반에 200여 개 이상으로, 1960년대에 34~58개로, 1970년대에 9~124개로, 그리고 1980년대에 4~100여개로 시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I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신도안 종교촌은 종교취락, 다종교취락, 풍수지리·풍수도참적 장소성, 1984년 폐쇄로 인한 촌락 소멸, 본래 입지에 대한 접근 불가, 선행연구 결과들 간의 큰 편차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크고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기

촌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및 종교구성을 복원하고자 했다.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은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존속, 단속, 폐쇄 및 종교의 이전 등의 측면에서 파악되었는데, 그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적시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및 풍수도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계룡산의 풍수지리는 「정감록」에 기반한 비기도참과 결합하여 풍수도참화 되었는데, 이는 계룡산 자연경관의 풍수도참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엔 계룡산의 풍수지리의 궁극지인 신도안의 '길지성의 도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계룡산 신도안의 풍수도참의 실현은 미신취락 출현, 계룡산성도건설운동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고, 그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신도안 종교촌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과정을 보면, 신도안에 사람이 본격 정착한 것은 조선 중엽에 풍수지리를 신봉하는 유림들이 유입되면서부터였고, 19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선 계룡산풍수도참 신봉자들, 신선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등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은 주로 '유사종교 성격의 신흥종교' 또는 '무속'을 세웠거나 이들의 신도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초기 전후인 1903~1904년경 또는 1912년에 신도안에 시천교가 최초로 유입되고, 시천교의 신도안 유입이 이후 군소영세 신흥종교들의 신도안 대거 유입을 촉진하면서 신도안 종교촌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신도안 종교촌의 존속 상태를 보면, 신도안 종교촌은 발생 이래 일제강점기 내내 수적 규모를 갖추지 못했으나, 해방 이후 1950년대 초반 6·25전쟁을 계기로 번성하기 시작하여 1970년 들어 1백여 개가 넘는 종교가 입지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신도안 종교촌은 1980년대 전반 폐쇄 직전까지 대체로 가구 1,000여 호에 인구 5,000~7,000여 명을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신도안 종교촌에 대한 단속 양상을 보면, 일제강점기 이래 1970년대 전성기에 이르는 시기에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신흥종교와 무속이 계룡산 일대의 자연을 훼손하고 있음은 물론, 종교촌 밖 사회 전반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사회·자연정화운동·사업을 수차례 전개했고, 그때마다 신도안 종교촌에서 신흥종교와 무속이 추방되는 일이 거듭

되었다.

다섯째, 신도안 종교촌의 폐쇄 및 종교 이전에 관해 보면, 신도안 종교촌은 1983년에 고시된 6·20사업이 시행되면서 1984년에 폐쇄되었으며, 이때 신도안 종교촌 일대의 무속도 함께 철거되었다. 신도안 종교촌의 폐쇄로 신흥종교들은 주로 인근 대도시 대전과 인근 중소도시로 이전했으며, 신도안 종교촌 일대에 공존하던 무속은 대부분 특성상 계룡면 양화리 등 계룡산에 최대한으로 근접한 곳으로 이전했고, 극히 일부만 인근 도시로 이전했다.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구성은 종교계통구성 및 개별종교구성의 두 측면에서 파악되었는데, 그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안 종교촌 종교계통 구성에서 가장 현저한 특성은 신도안 종교촌에는 다양한 종교계통의 종교들이 혼재했다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종교별 종교계통의 분류가 상이했지만, 이를 정리하면 1차적으로 동학적 종교와 서학적 종교로 분류할 수 있고, 2차적으로 동학적 종교는 선교(도교), 유교·불교, 단군, 무속, 물법 등의 종교계통으로, 서학적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계통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 잡교로 분류되는 종교계통도 있다.

둘째, 신도안 종교촌 개별종교구성의 특성은 개별종교의 고유성 유지 및 개별종교간 공존, 신흥종교와 정통종교의 혼재, 개별종교별 소속 종교계통의 불명확성, 시기별 개별종교 구성수의 상이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과 종교구성에 한정해서 개관적 고찰을 했으나, 차후의 연구에서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와 경관 등에 관해서도 고찰하여야 신도안 종교촌의 전모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존하는 몇몇 단일종교촌들에 관한 연구도 새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신도안 종교촌과 같은 다종교촌과 사하촌, 기독교 신앙촌, 천주교 교우촌, 정감록촌, 증산교촌, 태극도 마을 등의 단일종교촌에 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한국에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존하는 몇몇 종교도시까지도 연구가 이뤄지면, 한국종교지리의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²¹⁾

본 연구는 계룡산의 풍수지리 및 풍수도참 특성이 신

도안 종교촌 발생의 주요 요인의 하나임을 1920년대 이래 최근까지의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밝힌 바 있는데, 본 연구는 차후 계룡산의 풍수지리 및 풍수도참 특성이 계룡산 주변 지역들의 지역정체성 형성에 끼친 영향을 구명하는 연구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²²⁾ 또한, 본 연구에서 계룡산의 풍수지리 및 풍수도참 특성이 신도안 종교촌 발생의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은 차후 새로운 연구자의 관점, 새로운 기존 자료의 발굴 등에 따라서 전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밝힌다. 특히, 이러한 가능성은 사하촌, 정감록촌, 증산교촌, 태극도 마을, 기독교 신앙촌, 천주교 교우촌 등 소멸했거나 잔존하는 단일종교촌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註

- 1) '장구산'은 신도안 내명당의 좌청룡에 해당되며, 과거엔 금계산(金鷄山)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장구산(계룡시, 2013), 중봉(계룡시, 2013; 국토지리정보원, 2018), 중봉산(국립지리원, 1996b), 장구산중봉(국립지리원, 1977; 1981) 등으로 불리며, 높이는 179.5m(국토지리정보원, 2018)이다.
- 2) 신한서림이 1968년에 간행한 이능화(李能和)의 「조선기독교급외교사 하편」은 본래 이능화가 1928년에 조선기독교창문사(朝鮮基督教彰文社)에서 발간한 「조선기독교급외교사 하편(朝鮮基督教及外交史 下篇)」의 복인본(複印本)이다. 이 문헌에 게재된 이른바 '대원군 계룡이도설'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5(近世朝鮮政鑑). 大院君欲移都雞龍 以識書有鄭氏代李氏之兆 訶니相傳公州雞龍山은爲鄭氏之都 大院君이欲移都以歷勝 訶야發役夫 訶야開基掘地 訶야得石礎甚多 訶고訖言空中 訶有人言 訶드 訶此는鄭氏千年之宅이니 犯者는必大禍라 訶니大院君이知其爲妄. 而以財政匱乏 訶야難於告成 訶으로遂止 訶니라 (이능화, 1968:31).
- 3) 善生永助(1933:253)는 계룡산 신도내 미신취락과 유사한 사례로 당시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全羅北道 井邑郡 井州邑)의 보천교 본부(普天教 本部) 부근의 신흥취락과 대전군 금병산록(大田郡 錦屏山麓)의 운수교(雲水教) 신자의 집단부락을 제시하고 있다.

- 4) 계룡산 신도안에 이어서 나타난 성도운동의 땅은 전라북도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井邑郡 笠岩面 大興里)인데, 여기는 흙치교(畔哆敎)의 후신인 보천교(普天敎)에 의해 경영되었으며, 이외에, 성도건설을 기획한 곳으로는 당시 충청남도 대전군 탄동면 추목리(大田郡 炭洞面 秋木里),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燕岐郡 錦南面 金川里) 및 함경남도 문천군 운림면 마간리(文川郡 雲林面 馬汗里) 일대 등이 있다(村山智順, 1935:944-946).
- 5)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는 본래 1914~1918년의 5년간에 걸쳐 제작되었는데(양태진, 1982), 여기에서는 이 지도점의 최종 완성년도인 1918년을 제작년도로 표기했다. 이 지도점은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가 1982년에 복간(復刊)한 것이다. 이 지도점의 일부인 논산·유성·공주·대전 도폭의 정확한 제작년도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이 지도점의 제작년도를 1914년으로 간주하면, 시천교는 1918년 이전이 아니라 1914년 이전에 신도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 6) 출처에는 신흥종교 교단수가 104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부기되어 있는 표에는 해당 종교의 명칭이 124개가 제시되어 있어서 본 연구자가 종교의 수를 104개에서 124개로 수정했으며, 마찬가지로 형식상 규모를 갖춘 신흥종교수도 36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부기되어 있는 표에는 해당 종교의 명칭이 39개가 제시되어 있어서 본 연구자가 종교의 수를 36개에서 39개로 수정하였다.
- 7) 이러한 신도안 종교촌의 시기별 종교의 수는 '기성의 고급 정통종교의 수' 및 '유사종교 성격의 신흥종교의 수'를 모두 합친 것으로 추정된다. 신도안 종교촌에는 일제강점기 이래 1984년 폐쇄 직전까지 정통종교와 신흥종교가 공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8) 출처에는 종교의 수가 104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부기되어 있는 표에는 해당 종교의 명칭이 124개가 제시되어 있어서 본 연구자가 종교의 수를 104개에서 124개로 수정했다.
- 9) 1975년 신도안 종교촌을 중심으로 출몰했던 124개 신흥종교들 중 39개는 '형식상으로 규모를 갖춘 신흥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출처 원문에는 규모 갖춘 신흥종교 수가 36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부기되어 있는 표에는 해당 종교의 명칭이 39개가 제시되어 있어서 본 연구자가 종교의 수를 36개에서 39개로 수정했다.
- 10) 출처에서 41개의 종교는 1975년에 시행된 자연정화사업으로 없어진 신흥종교임을 밝히고 있다.
- 11) 출처에서 4개의 종교는 신도안 주요부에 한정해서 조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 12) 출처에서 59개의 종교는 1984년 6·20사업으로 인해 신도안에서 이동한 종교임을 밝히고 있다.
- 13) 출처에서 51개의 종교는 1984년 6·20사업으로 인해 신도안에서 이동한 종교임을 밝히고 있다.
- 14) 출처에서 신도안 종교촌 해체 이전의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다.
- 15) 1984년 폐쇄 직전 신도안 종교촌에 잔존해 있던 종교로 추정된다.
- 16) 1984년 폐쇄 직전 신도안 종교촌에 잔존해 있던 종교의 일부가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 17) 출처의 자료는 1984년 신도안 종교촌이 폐쇄된 직후의 자료로 추정된다.
- 18) 출처의 자료는 1984년 신도안 종교촌이 폐쇄된 이후의 자료로 추정된다.
- 19) 자료는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시기부터 폐쇄시기까지 존재했던 종교계통 및 개별종교를 모두 나열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 1개의 개별종교는 3개 시기 모두 '시천교'이며, 1918년의 경우 개별종교의 수로는 1개이지만, 시설의 수로는 2개(시천교지부, 시천교회당)이다.
- 21) 한국종교지리의 정립과 관련해서는 류제현(2002: 21-60)이 「한국문화지리」의 '제2장 종교경관'에서, 그리고 임덕순(1990:96-125)이 「문화지리학: 문화와 지리의 관계」의 '제3장 언어와 종교의 지리' 중 '제2절 종교와 그의 공간: 지리적 측면'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종교지리의 정립이 이루어지면, 한국적 종교지리학의 정립도 가능할 것이다. '종교지리학'은 국외에서 이미 오래전에 木內信藏(1970)이 「문화지리학(文化地理學)」에서 종교지리학을 일본 사례와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정립했고, Lowenthal and Bowden(1976)은 *Geographies of the Mind*에서 종교지리학의 차원을 넘어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 Tuan(1998)의 *Escapism*에 이르고 있다.
- 22) 본 연구자는 지역정체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최

원희, 2016; 2017)에서 특정 지역의 입지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 형성에도 그 지역의 풍수지리적 특성이 일단의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참고문헌

- 계룡면지편찬위원회, 2006, 「계룡면지」.
계룡시, 2005,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4년사」.
계룡시, 2013, 「계룡시관광안내도」.
공주시·공주학연구원, 2015, 「공주학강좌」.
구중희, 2001, 「계룡산 굽당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국립공주박물관, 2007, 「2007 특별기획전: 계룡산」.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 2018, 「이야기로 만나는 계룡산국립공원 문화지원」. 공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김덕중, 1984, 「계룡산 신도내의 종교(신흥) 실태 조사: 1981~1984년」, 계명중학교 향토조사반(미출간 자료).
김상식·안재웅·김성희·유명숙, 1984, “신흥종교 취락의 발생과 변천에 관한 연구” 지리학보고, 3, 45-56.
김수동, 1997, “계룡산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옥희, 1981a, “한국천주교 박해시대 교우촌 형성에 관한 사적 고찰 I: 진천·배티(梨峙) 지방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54, 80-91.
김옥희, 1981b, “한국천주교 박해시대 교우촌 형성에 관한 사적 고찰 II: 진천·배티(梨峙) 지방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55, 51-61.
김옥희, 1982, “한국천주교 박해시대 교우촌 형성에 관한 사적 고찰 III: 진천·배티(梨峙) 지방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56, 118-130.
김용곤, 1989, “신흥종교 취락에 관한 연구: 보천교 발상지 대흥 마을을 중심으로” 지리학보고, 7, 27-52.
김홍철, 1992, “한국 신종교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8, 421-475.
논산군지편찬위원회, 1994, 「논산군지」.
논산시지편찬위원회, 2005, 「논산시지: 4권 민속과 현대문화」.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 「두마면지」.
류계현, 2002, 「한국문화지리」, 서울: 살림출판사.
신일철, 1978, “정감록 해제” 이병도·신지·최재우·이지함·김근수·남만성·안호상·최동희 역,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서울: 삼성출판사, 268-306.
신일철, 1983, “정감록” 현암사 편 「한국의 명저 2」, 서울: 현암사.
신중성, 1984, “덕소 신앙촌의 형성과 가옥구조” 지리학연구, 9, 325-340.
신중성, 1985, “동부 선린촌의 형성과 특성” 응용지리, 8, 107-126.
양태진, 1982, “한국 지형도의 복간에 즈음하여” 정인문화사 편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서울: 정인문화사, 서문
오석민, 2013, “계룡산 신도안과 정감록 신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삶이 있는 이야기 충남」, 서울: 도서출판 옹기장이.
오세창, 1979, “풍기읍의 정감록촌 형성과 이식산업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9, 166-185.
유병덕, 1986, 「한국 신흥종교」, 서울: 시인사.
윤이홍, 2007,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이경호, 1964, 「계룡산 신도안과 유사종교」, 공주: 공주사범대학.
이길구, 1996, 「계룡산」, 대전: 대문사.
이길구, 1997, 「계룡산 신도안·돌로서 금정을 덮었는데」, 대전: 대문사.
이길구, 2001a, 「계룡산맥은 있다」, 대전: 누리문화사.
이길구, 2001b, 「방백마각 구옥화생」, 대전: 누리문화사.
이길구, 2009, 「계룡비기」, 대전: 월드자인.
이능화, 1968, 「조선기독교급의교사: 하편」, 서울: 신한서림.
이영숙, 2000, “계룡산 신도안 지역의 문화역사지리적 성격”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화복, 1984, “대전에 부는 신개발 바람” 동아일보사, 「산동아」, 4, 355-361.
임덕순, 1990, 「문화지리학: 문화와 지리와의 관계」, 서울: 법문사.
장철수, 1976a, “신앙촌락의 구성과 인간관계: 계룡산 신도안의 한 촌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철수, 1976b, “신앙촌락의 구성과 인간관계: 계룡산 신도안의 한 촌락을 중심으로” 인류학논집, 2, 99-162.
정중수·서현강, 2003, 「계룡산」, 서울: 대원사.
조동길, 2004, “1920년대의 계룡산 (4): ‘계룡산기’의 내용과 의미” 웅진문화, 17, 32-56.
주경식, 1984, “계룡산 신도안의 지리적 현황” 지리학, 29, 72-88.
지중하, 2014, “하류의 풍수와 신도안 입지의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문화, 53, 181-204.
최원희, 2016,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홍성군 결성면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 5(2), 155-180.
- 최원희, 2017, “청양군의 지역정체성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6(2), 215-253.
- 최원희·이근화·성정락, 2018,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 개관: 산지풍수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지리학회지, 7(3), 337-362.
- 최종석, 1999a, “김제시 금산면 용화동의 증산교 종교촌 연구: 사파의 발생과 종교시설 배치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종석, 1999b, “김제시 금산면 용화동의 증산교 종교촌 연구: 사파의 발생과 종교시설 배치를 중심으로” 충북지리, 16, 107-130.
- 최창조, 1984 “계룡산 정기는 아직도 살아 있다” 마당, 29, 108-111.
- 최창조, 1986, “전라북도 특수취락의 유형과 특성” 전라문화논총, 1, 1-23.
- 최창조, 1988, “모악산의 믿음 마을과 그들의 신앙” 전라문화연구, 2, 181-199.
- 충청남도, 1994, 「계룡산지」.
- 충청남도, 1997, 「충남개도 100년사: 하권」.
- 충청남도, 1999, 「사진으로 본 충남 100년」.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 「계룡소고」(3판).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 「신도고사」(재판).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 「계룡의 어제와 오늘」.
-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a, 「충청남도사: 16 전통사상」.
-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b, 「충청남도사: 22 현대종교와 신앙」.
- 한국종교학회, 1985,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
- 한홍수, 1993, 「충청의 재발견 I: 계룡산, 대전」 한민출판사.
- 木内信藏, 1970, 「(朝倉地理學講座文 8) 文化地理學, 東京: 朝倉書店」.
- 善生永助, 1933, 「朝鮮の聚落: 前篇」, 朝鮮總督府
- 李覺鍾, 1924, 「朝鮮の迷信と鷄龍山」 朝鮮, 8, 116-137.
- 李能和, 1928, 「朝鮮基督教及外交史: 下篇」, 京城: 朝鮮基督教義文社
- 仲摩照久, 1930a, 「地理風俗: 朝鮮地方 上」, 東京: 新光社
- 仲摩照久, 1930b, 「地理風俗: 朝鮮地方 下」, 東京: 新光社
- 村山智順, 1931, 「(民間信仰 第二部) 朝鮮の風水」, 京城: 朝鮮總督府
- 村山智順, 1935, 「(調査資料 第42輯) 朝鮮の類似宗教」, 京城: 朝鮮總督府
- 국립지리원, 1977, 「1:25,000 지형도: 월암 도폭」.
- 국립지리원, 1979, 「1:50,000 지형도: 대전 도폭」.
- 국립지리원, 1981, 「1:50,000 지형도: 공주 도폭」.
- 국립지리원, 1986, 「1:25,000 지형도: 월암 도폭」.
- 국립지리원, 1996a, 「1:5,000 지형도: 공주 079 도폭」.
- 국립지리원, 1996b, 「1:5,000 지형도: 공주 080 도폭」.
- 국립지리원, 1996c, 「1:5,000 지형도: 대전 071 도폭」.
- 국토지리정보원, 2018, 「1:50,000 지형도: 공주 도폭」.
- 朝鮮總督府, 1918,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大田論山圖幅」.
- Lowenthal, D. and Bowden, M., eds., 1976, *Geographies of the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yu, J.H., 2005, Kyeryong mountain as a contested plac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5), 553-570.
- Tuan, Y.-F., 1998, *Escapis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경향신문, 1976년 3월 12일자, 「신도안 出入통계 忠南道驚巫俗행위 등 막게」
-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자, 「(계룡산기(鷄龍山記) 제1회분의 기사) “저주할 휴전기념일에 평화의 왕을 차져서 정도령은 잇는가 업는가 가을에 싸인 고찰 동학사”
- 계룡시 홈페이지, <http://www.gyeryong.go.kr>
- 다음카페 “신도안친구들”, http://cafe.daum.net/sindoan_friends
-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 교신 : 최원희,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5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wh@kongju.ac.kr)
- Correspondence : Wonhoe Choi, 32588,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cwh@kongju.ac.kr)

투 고 일: 2019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7일
투고확정일: 2019년 8월 13일

